

주철현·정기명 지역위원장 “당 화합과 시민 신뢰회복에 최선”

27일 당 최고위 여수갑 주철현, 을 정기명 위원장 임명의결당원 소통자리 마련
정책간담회 통해 지역현안 함께 해결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정치의 시대를



▲주철현 위원장 ▲정기명 변호사

주철현 민선6기 여수시장과 정기명 변호사가 민주당 여수갑·을 지역위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민주당과 당 여수갑·을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된 지역위원장 공모 심사

결과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정기명 변호사를 여수갑·을 지역위원장에 임명했다. 주철현 신임 여수갑 지역위원장은 민선6기 여수시장 4년 동안 여수를 대한민국 최고의 소통도시, 3년 연속 관광객 1300만명 방문 도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상징도시 명품도시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기명 변호사는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수를

상임위원장, 지방선거에서 여수 지역위원장으로서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낸 정치신인답지 않은 정치인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했다.

신임 여수갑·을 지역위원장은 임명과 함께 지역위원회 당원과 함께 ‘화합’과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정치’를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먼저 두 지역위원장은 당원과 정례적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당원들로부터 신뢰받고 화합하는 지역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시·도의원·당직자와 지역 현안에 대한 주기적 정책간담회와 토론

의 장을 열어 지역문제에 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새로운 지방정치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두 지역위원장은 임명 당일 서한 석 여수시의회 의장과 저녁 회동을 통해 시민들과 당원들로부터 신뢰 회복 및 향후 지역위원회 운영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고, 다음 날인 28일에는 당 시도의원, 당직자들과 광주 5.18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또한 “여수에서부터 2020년 총선 승리와 2022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호남의 압도적 지지 분위기를 조성해 내고 민주당 여수갑·을 지역위원회는 깨어있는 여수시민과 당원의 동참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한편 주철현 위원장은 1959년 여수출신으로 ▲미평초·구봉중·여

수고·성균관대학교 졸업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광주·창원 검사장, 법무부 범죄예방 정책국장 ▲2014년 6월 민선6기 여수시장 ▲2018년 문재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특별위원을 역임했다.

정기명 위원장은 1962년 여수출신으로 ▲서초·구봉중·여수고·전남대학교 법학과,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2002년부터 여수에서 변호사로 활동 ▲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여수지역 상임위원장, 6·13 지방선거 당시 여수 지역위원장 ▲현재 여수시장, 여수 MBC, 여수 수협, 여수 원협, 여수 의용소방대, 여수시장에인종합복지관 등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항란 기자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잦은 가동 정지

여수 시민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불안해야 하는 것인가!

2월11일 오후 9시 30분 경 무선성산 공원 쪽에서 동쪽으로 여수국가 산단 쪽에서 불기둥(flare stark)이 치솟아 오르는 제보를 받았다. 여수 산단으로 달려가 보니 롯데케미칼 공장이다.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불기둥이 치솟는 지 불과 4일이 된 시점이다.

지난 7일 오후 9시5분 검은 불기둥과 함께 붉은 불기둥이 치솟는다는 소라대포 주민들의 제보로 현장을 다녀온지 4일 만에 다시 불기둥이 치솟아 오른 것이다.

이 때 공장이 멈춘 이유를 롯데케미칼 측에서는 자체 변전소 MCC 배전반 GTG 분전반 Blaker Power Fail로 인하여 공장 Shut Down 되었다는 공식 발표만 반복하고 있다.

GTG 배전반 Blaker Fail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잦은 사고만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장 가동 중 갑자기 가동정지(Emergency Shut Down)시 불기둥이 검은 연기와 함께 치솟는 현상으로 인근 공장 근무자 및 주민들은 주변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우레와 같은 소음과 매캐한 냄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무선 주민 김현아(46세)씨는 “여수국가 산단이 생긴지 수십 년 동안 예기치 못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는 말을 우리는 언제까지 듣고만 있어야 하나”고 말했다.

2018년 8월 23일 산단 안전대책 공청장 회의를 열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했고, 여수시는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대규모 사고로 번질 수 있어 상



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수시의 안전대책이 무색하게 여수산단 내 안전사고는 끊이지 반복되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대포2구 주민 신용우씨(64세)는 “화차에서 이주 하여 온 100여 세대가 40년 동안 여수산단의 공해와 빈번한 사고로 인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하며 “겨울철엔 특히 창문도 못 열고 자동차에 먼지가 쌓이고 있는 것을 봐라.”며 분노했다.

불안을 넘어 고통 속에서 분노하는 소라면 대포2리 주민들은 현재 환경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의 검은 연기와 불기둥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대포2구 이재환 이장은 “주민 스스로 악취와 분진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필요성을 느낀다. 대형사고가 일어날 때 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하여 전 문가라는 관계자들은 기업들의 설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대책 없이 피해만 쌓이는 현실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며 방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롯데케미칼 공장은 명확한 사고 원인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공론화 하여 빠른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고, 여수시는 여수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줄 방안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여수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다.

최항란 기자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한전협력업체 작업자들의 폭행사건

경찰은 수사만 4개월...해당사실 없다는 피의자 말만으로 검찰송치

지난해 11월초 여수 화동동 소재 모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요청을 일방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목살된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4개월째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주민들의 반목을 사고 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사건당일 해당학교 운영위원장인 A씨는 여

수시모범운전회 소속으로 아이들의 등교시간에 맞춰 교통봉사를 하고 있었다. 이는 경찰공무원을 대신해 정복을 입고하는 봉사활동으로 경찰과 동일한 권한으로 교통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러던 중 한·전 소속으로 보인 대형작업차량이 스쿨존에 진입했다.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한 A씨의 차량이동 요청에

차량은 학교 안으로 이동했고 작업자들은 시동도 끄지 않고 등교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방해했다.

이에 A씨는 아이들이 많고 복잡하니 학교 내에서 당장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학교에서 행하고 있는 한전 작업자들의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고 이를 목격한 한전작업자 중 B씨가 A씨의 목살을 잡고 가슴을 가격하는 폭력을 행사했고, 함께 있었던 한전 동료 3-4명이 왜 사진을 찍느냐며 차로 깔아 죽여 버린다.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협박성 폭언을 했다. 등고 중인 어린이들과 학부모 모두가 상황을 두려움에 떨며 목격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학부모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피의자들은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사건접수를 했으나 수사는 4개월째 제자리걸음이라고 했다.

피해자 A씨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의문을 가진다. 수사과정에서 학교CCTV의 고장으로 여수시중앙관제센터에 문의를 하니 해당 사건에 대한 녹화물이 있으나 개인에게



▲첫 번째로 차를 빼달라고 요구 할 때 차량의 위치

줄 수 없고 담당 수사관에게만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일관된 증언을 하는 증인이 있었지만 무시하고 4개월이 다된 후에서야 전화로 피의자 조사만 하고 대질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4개월째 수사에 진전이 없자 A씨는 경찰에 항의를 했지만 해당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담당 수사관도 바뀌어 추가수사는 어렵다는 답변만을 받았다. 결국 경찰은 해당사실이 없다는 피의자의 말만 듣고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다.

A씨는 “이 사건을 초등학교에서 그것도 어린이들 앞에서 발생한 만큼 경찰이 한 사람의 단순 폭행 사

건으로 치부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스쿨존은 어린이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인 만큼 관계부처는 통학시간만이라도 대형 작업차량을 이용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방지하는 스쿨존 안전수칙을 확실하게 개정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폭행사건을 지켜봤던 학부모들은 검경수사관 조정을 거론하며 경찰의 수사능력을 신뢰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현재 A씨는 여성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허술한 수사 진행에 대한 답변을 요청해 둔 상태다.

송영선 기자

본사 인터넷신문방송 김영주 대표 선임

환경단체활동가인 김영주(49)씨가 여수일보 인터넷신문방송 대표로 선임됐다.

주식회사 여수일보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김영주 사단법인 ECO-PLUS21 대표를 여수일보 인터넷방송 대표로 선임했다. 신임 김영주 대표는 한영대 사회복지학과와 전남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를 졸업하고 사단법인 모두모아봉사대 초대회장을 지냈으며 시민환경단체인 사단법인 ECO-PLUS21 초대회장장과 영산강유역환경청 ECO-



김영주 대표는 “지역 구석구석의 소식을 시민기자들과 함께 전달하겠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편향적이지 않고 바른 언론문화 창달에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PLUS21 소모임 대표 역임중이다. 현재는 금오관광 대표를 맡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웨드

웨드가 존재하는 이유
더 이상 외로워 하지 마세요!!
가장 많은 남녀 회원이 선택한 웨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로 당신을 인도하여 가장 행복한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왜 웨드 일까요?

- 유료회원수 전남 최다 보유로 당신과 어울리는 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성혼회원수 여수 최고의 성혼율은 웨드의 자랑입니다.
- 역사와 규모 1998년 개원 이래 지난 21년간 이 지역 최대의 규모로 성장해 왔습니다.
- 전문적인 관리 다년간의 경험과 과학적인 매칭시스템으로 당신의 짝을 끝까지 책임지고 찾아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 고객의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국내결혼
wed.co.kr

국제결혼
wed.kr

등록번호-전남2008-023
신고번호-전남2008-0003

061) 683-1000

‘중고차 거래의 멘토’ ... “믿음과 신뢰를 팝니다”

쇼대석 / 보성자동차 문경일 대표

지난해 중고차 시장의 거래액이 30조를 넘어서었다. 중고차 거래대수가 화물 특수차를 포함해 평균 366만대로, 이는 신차 169만대의 2배 수준이다.

이런 치열한 중고차 시장에서 오늘날 지역 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의 멘토가 있다.

여수시자동차매매협회의 문경일 보성자동차 대표도 그 중 하나다.

문경일 대표는 “과거 부와 명예의 상징이던 자동차는 성공의 아이콘이었지만 현재의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따져 가치 있는 선택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면서 “소비자들은 새 차와 거의 같은 품질과 믿을 수 있는 중고거래가 된다면 가치 있는 선택을 하게 된다”며 중고차 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그가 지역내에서 꾸준한 봉사활동까지 펼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문 대표는 사단법인 모두모아봉사대봉사 등 여러 봉사단체에 소속돼 남다른 봉사활동으로 지역민들의 희망이 되기도 한다.

다음은 문경일 보성자동차 대표의 일문일답이다.

중고차 하면 말 그대로 누군가 쓰던 차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가지않는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된 바탕이 무엇일까요?

△자동차가 과거에는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자동차는 성공의 아이콘이었지요. 지금도 성공하면 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타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현재의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따진다는 겁니다. 합리

벗어났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요.

새 차와 거의 같은 중고차라고도 하셨는데요

△요즘 자동차는 쉽게 고장이 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도로 완성도가 높고, 출시 때 성능에 문제가 있었으면 언젠가 리콜해주는 제도가 있고 이것은 중고차를 샀을 때도 적용이 이어지고 있지않아요.

새 차와 거의 같은 품질 믿을 수 있는 중고거래라면 소비자도 가치 있는 선택

성실함과 철저한 AS로 소비자에 신뢰 쌓은게 무기

1~3년쯤 된 중고차는 거의 새 차나 다름없이 깨끗하고 치명적일 정도의 고장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때가 되면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 교체가 있을 뿐이지요.

그럼 5년 이상 10년 이상이 된 오래된 중고차일 경우 문경일 대표께서는 어떻게 신뢰를 주셨을까요?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서비스 A/S가 우선이겠지요.

중고차의 양면성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중고차 딜러들은 성실성의것,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더 철저한 AS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개월까지도 관리를 해주신다는 말씀에서 문경일 대표님의 여수 중고시장 10년 동안의 성공 비결이 느껴집니다. 봉사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사회환원이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한가요?

저는 대기업도 아니고 지역의 작은 중고매매상을 운영하지만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와 나눔이 따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좋은 분들이 제 곁에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과 함께 저도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단체는 어떤 곳인가요?

△네, 저의 작은 재능과 미약한 기부가 도움이 된다면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신해양 발전협의회, 사)ECO-PLUS21, 사)모두모아봉사대, 여수경찰서시민명예경찰, 여수경찰서중앙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고차 잘 사는 법 무엇일까요?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터무니없이 싸다면 의심스러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많으니 조심하세요. 제 값주고 사고 제 값주고 팔면 제일 좋은 중고거래가 되겠지요. 가장 기본은 국가에 정식으로 등록된 중고차 매매 전문업체를 통해 구입하는게 기본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있지요. 성능기록부나 차량등록증, 보험조회, 압류나 저당조회, 등을 전문매장에서 여러 가지 확인시켜야 합니다.

나의 생명과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타는 차를 그냥 싸다고 확인도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요?

최환란 기자

케이크 자르며 파티로 진행된 졸업식

지난 1일 무선초등학교를 졸업식장 아이들 앞에는 케이크와 음료수가 놓여있다.

올해 23회 졸업생 위해 무선초등학교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줄 수 있는 색다른 졸업식으로 진행했다.

케이크를 자르며 서로 졸업을 축하해 주고 자연스럽게 음료수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유로운 풍경이다. 졸업장을 건넬받은 아이들은 이 날만큼은 주인공이고 무엇보다 부럽지 않다.

전배제의를 하며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조속진 교장과 아이들의 얼굴에선 행복한 미소가 멈추질 않는다. 김영주 운영위원장도 흐뭇한 미소와 함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색적인 졸업식에 아이들도 학부모도 선생님들도 모두 상큼한 기분을 즐겼다.

보는 이도 하는 이도 흥겨운 이 졸업식에 5학년 재학생들의 리코더 연주와 일명 방탄초당단(5학년 재학생)의 축하공연에 졸업식장은 축제의 장이 되어 더 절정에 이르렀다. 선생님들의 숨은 손길이 속속들이 배어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런 행사를 준비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물음에 무선초등학교 조



무선초등학교 졸업식장 5학년 후배들 '방탄초당단' 공연 등 이색 장면

숙진 교장은 “모든 행사에는 의미와 감동이 있어야 한다. 감동이 있어야 의미가 살아난다고 본다. 우리 아이들이 6년을 마무리 하면서 우정을 기억하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자랑스런 무선인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이다”며 장소와 인원을 고려해 정성껏 준비해왔다.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은 듯하여 고맙고 다

행이다”라며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정을 보였다.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졸업식, 지루할 틈도 없이 흥미진진한 하루였다. 김경아 기자

<송정현 미용장의 머리카락이야기>

“솜사탕 펴므로 볼륨감을 되찾자”



수확공식이 있고 설계 공식이 있듯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에도 공식이 있다.

지붕에 구멍이 뚫렸거나 지붕이 없는 집을 상상하면 어떤가? 지붕이 건축물의 완성도를 결정한다면 개성을 표현하는 것의 여러 가지 요소 중 헤어스타일이 지붕의 역할

이지 않을까 생각해보자.

예를 들면 의상, 화장, 신발 등 모든 걸 멋지게 했지만 헤어스타일이 엉망이라면 어떻게? 패션에 완성성은 헤어스타일이다. 멋진 헤어스타일을 표현해주는 미용사는 어느 정도 베이직을 익힌 후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두상과 모질, 모량을

파악 후 맞는 공식을 찾아내야 한다.

마치 기후에 맞는 자재를 선택하여 실용적인 건축물을 짓듯 개인의 개성과 피부톤, 얼굴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디자인하는 것이 미용사의 몫이다.

예전 미스코리아들의 머리를 보면 사자머리라고 하는 머리를 많이 봤다. 이유는 볼륨있는 헤어스타일이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이기 때문이다. 미용실을 찾는 대부분의 고객들도 볼륨감을 원한다.

예전에는 ‘썸’이라고 하는 기법을 많이 사용했지만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지글거리는 느낌과 손상이 많아 요즘은 많이 하지 않고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기법인 솜사탕 펴를 주로 한다.

손상을 줄이고 유지력이 길다는 장점이 있으며 흉해 바다 같이 갈라지는 머리카락을 교정해준다.

사진은 여수에서 자영업업을 하는 40대 고객이다. 오랫동안 긴 머리를 하다가 모발이 약해짐에 따라 볼륨감이 사라지고 뒤통수가 짝 갈라지는 것에 고민을 하셔서 솜사탕 펴므로 볼륨감을 되찾았다.



적인 소비를 원하는 가치소비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새 차와 거의 같은 품질과 믿을 수 있는 중고거래가 된다면 가치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판단으로 소비방식을 선택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신뢰의 중고거래란 어떤 것인가요?

△중고차 시장이 투명해진 것이지요. 과거 중고차 시장은 사고차인지 주행거리의 조작 등 명확한 정보가 불투명했던 어두운 흑역사를 가지고 있었기에 불신이 깊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품질보증인증, 성능점검부 첨부, 중고차 거래 실명제 등 불공정했던 과거의 시장에서



로 한 달 2000km 엔진 미션 보증법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면 3개월에서 5개월까지도 AS를 해드립니다. 지역사회잖아요. 최대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공유차의 중고매매 현황은 어떤가요?

△중고차 시장에서도 친환경차 거래가 최근 3년 사이 80%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175대에 불과 했던 전기차가 지난해 1009대를 기록하였으니 배로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친환경 중고차 거래는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많으니 조심하세요. 제 값주고 사고 제 값주고 팔면 제일 좋은 중고거래가 되겠지요. 가장 기본은 국가에 정식으로 등록된 중고차 매매 전문업체를 통해 구입하는게 기본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있지요. 성능기록부나 차량등록증, 보험조회, 압류나 저당조회, 등을 전문매장에서 여러 가지 확인시켜야 합니다.

나의 생명과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타는 차를 그냥 싸다고 확인도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요?

최환란 기자

여수일보 구독자 광고 문의 ☎ 061)654-8885

www.ysibtv.co.kr

세이팩 SAFE FIRM
대표 임근호
010-6876-8252
전남 여수시 한재로 118
TEL 1899-9785, 061)920-8252
FAX 061-684-8252
E-mail lgh8252@naver.com

위금오관광 여행사
대표/예약전문가이드
김영주 010-8669-5151
전남 여수시 여수신안로 140, 208호(주상동)
대표전화 1666-7478 FAX 061-681-7479
문의처 061-681-7472
개인E-MAIL tukung@hanmail.net
회사E-MAIL bushanaro@hanmail.net

댄스스포츠
이수진
Lee Su Jin
Mobile, 010-6216-0539
E-mail, sjeeyc@hanmail.net

dbmc
전남동부연합회
리더학원 / 코칭수학(수)
원장 차기철
59701 여수시 여남로 90 2층(상상가 301호)
Tel : 061) 654-3757 / 652-3757
Mobile : 010-4627-4456
E-mail : hang2020@hanmail.net

김용준 PARIS BAGUETTE
점주 | President
파리바게트 여수중앙점
전남 여수시 중흥동 671번지
Phone 061-663-4800 Mobile 010-9222-7939
E-Mail tazza7939@gmail.com

ASIA TOP10
글로벌 그룹
박재석
롯데손해보험(주)
550-817 전남 여수시 문수로 14 동흥빌딩 2층
T 061-900-5830 F 061-900-5859
M 010-6602-0812
고객센터 1588-3344

피라미드 구들 황토방
대표 이희정
전남 여수시 만성로 263(만흥동)
영진자동차학원 100미터 아래
TEL : 061) 654-1369
H/P : 010-9549-1369
영업시간 : 06:00~23:00

Tire Mart
타이어마트
KUMHO TIRE
MICHELIN
GOODYEAR
김용준
전남 여수시 봉계동 755번지 (석창사거리 석창교회 앞)
Tel 061-682-2918 Fax 061-682-7179 010-4611-8585
E-mail green8113@hanmail.net

伯秀 Japanese Restaurant
대표 김경수
여수시 여서동 여문문화1길 54
Tel. 061-651-1133
Mobile, 010-6484-2306

여수바다
김효심
전남 여수시 소래면 죽림 중로 14
Tel 061. 655. 1329 HP 010. 6357. 1329
계좌번호 수협 2060. 0033. 3645 김효심

HARRY'S GARDEN
대표 김경숙
여수시 여천동 60-1번지 해리스가든 하우스 웨딩 & 파티
mobile, 010-3719-7925
e-mail harrysgarden@naver.com
tel 061-692-5677 / 5578
fax 061-692-4499

충향골미당소회집
자연산 양식 활어 박스포장 전국택배
이재순
여수시 교동 680 여수산시장
☎ 061) 662-8944
H/P. 010-4100-8944
010-4641-1305

‘통섭의 미학을 조형으로 풀다’



신병은의 문화칼럼

양해웅 작가

지금 예술마루에서는 올 상반기 기획전으로 양해웅 작가 초대전이 열리고 있다. 화화와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는 양해웅작가는 이러한 조형예술의 경계를 허물어진 지점에서 일어나는 진동에서 시작되어 경계가 허물어진 놀이에서 끝난다. 그 놀이는 유희본능에서 비롯된 예술혼의 추입이다.

기존의 캔버스가 지닌 관습을 과감히 탈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의 작품을 표현하는 용어가 그동안 화단에서 입체회화나 부조 회화라 불리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평면과 입체, 원근과 색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작업을 하면서, 대상을 기호학적 의미로 재해석하는 추상작업을 시작했고, 다양한 오브제를 통합하는 입체회화에 심취하게 된다. 추상은 곧 단순화이고 마음으로 본 생명의 움직임을 잡아내는 데는 추상작업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시류에 쉽게 편승하지 않고 한 걸 걸이 눈 깊은 성찰로 삶을 진단하고 해석하여 개성적인 조형미로 새로운 공간과 인식의 세계를 보여주는 양해웅은 우리 삶의 현장을 거창하게 해석하고 발견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처에 서성이는 상처받고 허물어진 것들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기존의 조형적 관습을 과감히 벗어난 작업을 한다.

그의 조형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서로 넘나들며 연출하는 통섭의 요리다. 그가 입체적 금속캔버스와 목재 등에 기하학적인 직선과 곡선의 조형성을 통해 생명의 원형을 개려하는 이유도, 자연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깔로 균형있는 공간적 조형을 추상적으로 다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연과 인간의 삶을 미적으로 규명해 내기 위해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현상을 직시하면서 발견과 적용, 현상과 초월을 넘나들며 직관의 통찰로 가는 그만의 조형어법이다.

곡선이 순환적인 생명과 생성의 모습이라면 직선은 소멸을 의미한다. 자연적인 생명의 본성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직선은 인간의 인위적인 힘이 가해진 일그러진 생명을 의미하게 된다. 이제 양해웅은 직선에서 곡선으로 변용을 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직선적 시간과 사고의 패러다임에 대해 반성하면서 곡선이 지닌 생명의 운동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은 현상을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안겨있는 생명현상의 원형을 드러내 보이려는 의도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서로 넘나들며 만나는 통섭의 미학이다. 그가 다도해의 섬과 바다, 그리고 해와 달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그의 작품 무인도, 섬마다 뜨는 해, 지는 달 뜨는 해, 하늘 강을 흐르는 잠들지 않은 숲, 시간의 유적, 위험한 여정, 생명의 바다 등 공간성과 시간성에 대한 내포적 의미체현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포스가 곧 생각이고 공간이 곧 생각이다. 그러기에 그를 일컬어 평면적 회화와 입체적 조형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전위적 작가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초기에 기하학적 추상화를 중심으로 평면작업에 몰두하다 인간과 자연의 경계 선상에서 느껴오던 평면의 한계성을 과감히 탈피하기 위해 94년부터 나무와 금속조형의 새로운 미를 추구하게 된다. 자유분방한 상상력으로 생명을 통찰하고 보듬어내는 그의 작업은 생명의 원형을 깊이와 넓이로 만나기 위한 방법적 모색이자 풀리다. 철,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나무, 합판, 자동차 부품, 기계 부품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해 있는 오브제를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성을 기다리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 복원과 새로운 질서 확립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배어있다.

그가 다도해의 섬과 바다, 그리고 해와 달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그의 작품 무인도, 섬마다 뜨는 해, 지는 달 뜨는 해, 하늘 강을 흐르는 잠들지 않은 숲, 시간의 유적, 위험한 여정, 생명의 바다 등 공간성과 시간성에 대한 내포적 의미체현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포스가 곧 생각이고 공간이 곧 생각이다. 그러기에 그를 일컬어 평면적 회화와 입체적 조형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전위적 작가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초기에 기하학적 추상화를 중심으로 평면작업에 몰두하다 인간과 자연의 경계 선상에서 느껴오던 평면의 한계성을 과감히 탈피하기 위해 94년부터 나무와 금속조형의 새로운 미를 추구하게 된다. 자유분방한 상상력으로 생명을 통찰하고 보듬어내는 그의 작업은 생명의 원형을 깊이와 넓이로 만나기 위한 방법적 모색이자 풀리다. 철,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나무, 합판, 자동차 부품, 기계 부품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해 있는 오브제를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성을 기다리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 복원과 새로운 질서 확립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배어있다.

자유분방한 상상력으로 생명을 통찰하고 보듬어내는 그의 작업은 생명의 원형을 깊이와 넓이로 만나기 위한 방법적 모색이자 풀리다. 철,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나무, 합판, 자동차 부품, 기계 부품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해 있는 오브제를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성을 기다리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 복원과 새로운 질서 확립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배어있다.

자유분방한 상상력으로 생명을 통찰하고 보듬어내는 그의 작업은 생명의 원형을 깊이와 넓이로 만나기 위한 방법적 모색이자 풀리다. 철,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나무, 합판, 자동차 부품, 기계 부품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해 있는 오브제를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성을 기다리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 복원과 새로운 질서 확립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배어있다.

예술마루 상반기 기획전 양해웅 초대전 진행 삶의 현장을 거창하게 해석하고 발견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처에 서성이는 상처받고 허물어진 것들에 관심을 갖는다

이처럼 그의 발견과 적용은 자연과 인간의 경계선상에서 만나는 진동에서 출발한다. 자연주의자는 자신의 감성으로 여파한 자연 속의 동경과 꿈을 표현한다면, 자연의 안쪽을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들여다보고 자신만의 발상법을 형상화하는 그 또한 자연주의자로 보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다만 그의 자연관은 '천지天地의 기가 내 몸을 이루었으니 내가 천지天地의 본체本體이며 천지天地의 이렇가 내 마음이 되었으니 내가 바로 천지天地의 성性'이라고 한 퇴계退溪의 자연관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규명하려 한다. 그의 발상법은 시작 유추와 추상, 패턴인식에 의존하여 진행된다. 양해웅은 삶과 생명의 원형을 자연의 순환을 따라 바라보되 그 순환의 결마다 저며 있는 원형적 생명성을 기호학적 의미로 해석해 내어 이를 역동적으로 보이면서 그 원형으로 귀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그의 그림의 이면에는 훼손되지 않은 본래적인 생명을 향한 지문指文이 깔려있다.

이러한 지문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원형적 생명을 복원하고, 자연과 인간의 친화적인 삶을 꿈꾸면서, 종대하고 놀라운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추상작업에 기대기도 한다. 자연이란 스스로의 이치와 스스로의 시공 속에서 무한한 크기를 지닌 절대세계다. 이러한 절대세계인 자연에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는 얼마나 될까? 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연적이고 인간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추상적인 작품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좀 더 사유하고 좀 더 자유스러운 공감대를 이루어 나의 제작 의도를 유연하게 전달하고자 함이다. 이것이 나의 노정에 대한 확신이고 또 하나의 자연을 만들어 가는 열려있는 길임을 잘 알고 있다. - 양해웅의 작업 노트에서 -

그는 화가인 동시에 과학자가 된다. 그의 자연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자연이 되는 선순환이 닿은 곳이 바로 추상이다. 세계의 이면에 담겨있는 생성과 소멸의 선순환을 통찰함으로써 존재의 근원과 본성에 근접해 가려는 화가의 조형적 모색은 결국 통섭의 자연을 만들어 가는 길이다. 열릴 거창한 말 같지만 그것은 온생명으로서의 자연을 펼쳐두고 그 위에 날생명의 인간을 어떻게 기대어 둘 것인가를 고민하는 조형적 모색이다. 인간이 자연이 될 수 있는 길은 자연의 원형으로 귀환하는 일이다. 자연의 작은 한 부분으로서 완전히 동화됨으로써 일탈된 모든 영혼과 꿈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 그의 작품이다. 그는 일찍이 공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자연의 원형을 탐색하는 작업임을 헤아렸다. 자연과 인간, 우주의 근본 질서 회복을 역사성과 공간성을 함께 모색하면서, 재현과 실체사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상적 오브제를 조형적으로 재생시켜보려는 의도가 여기서 확인된다. 그의 작품 속에는 투박하면서도 자연의 섬세함이 담겨있고, 직선과 곡선, 선과 면, 평면과 공간, 상이한 온갖 오브제가 생명을 향한 일원적 세계로 서로 어울려 서정추상의 조형을 이루어 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양해웅은 제 깊은 곳에 응시하면서 좀 더 깊숙하게 스스로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움의 작가다. 그는 상처 난 인간의식을 어루만지면서 상처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리고, 훼손된 자연에서 훼손된 인간의 본성을 만나고, 이를 조형탐색으로 걸려내어 치유하는 길을 제공한다. 그러기에 그가 늘 위치하는 곳은 어둠이다. 밤하늘이거나 잠마진 곳, 그리고 사람의 자취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인도다. 처음의 모습을 보기 위해 어둠 속에 앉아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는 것이다. 투박치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답답해도 우리가 나아갈 길이 되는 한 올 빛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이라고 했다. 이 점에서 양해웅의 삶의 인식은 어둔 곳에 있으면서도 그의 시선은 항상 밝은 곳을 향해 있기에 건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래적인 처음을 바라보려는 안목으로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생명력을 담보하는 작업을 한다. 그의 작업을 들여다보면 그가 나중에 정착할 곳이 어디인지 짐작할 수 있다. 탄생과 존재, 삶과 소멸, 해체와 생성의 양면

에서 무한한 크기를 지닌 절대세계다. 이러한 절대세계인 자연에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는 얼마나 될까?

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연적이고 인간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추상적인 작품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좀 더 사유하고 좀 더 자유스러운 공감대를 이루어 나의 제작 의도를 유연하게 전달하고자 함이다. 이것이 나의 노정에 대한 확신이고 또 하나의 자연을 만들어 가는 열려있는 길임을 잘 알고 있다. - 양해웅의 작업 노트에서 -

그는 화가인 동시에 과학자가 된다. 그의 자연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자연이 되는 선순환이 닿은 곳이 바로 추상이다.

세계의 이면에 담겨있는 생성과 소멸의 선순환을 통찰함으로써 존재의 근원과 본성에 근접해 가려는 화가의 조형적 모색은 결국 통섭의 자연을 만들어 가는 길이다. 열릴 거창한 말 같지만 그것은 온생명으로서의 자연을 펼쳐두고 그 위에 날생명의 인간을 어떻게 기대어 둘 것인가를 고민하는 조형적 모색이다.

인간이 자연이 될 수 있는 길은 자연의 원형으로 귀환하는 일이다.

자연의 작은 한 부분으로서 완전히 동화됨으로써 일탈된 모든 영혼과 꿈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 그의 작품이다.

그는 일찍이 공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자연의 원형을 탐색하는 작업임을 헤아렸다.

자연과 인간, 우주의 근본 질서 회복을 역사성과 공간성을 함께 모색하면서, 재현과 실체사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상적 오브제를 조형적으로 재생시켜보려는 의도가 여기서 확인된다.

그의 작품 속에는 투박하면서도 자연의 섬세함이 담겨있고, 직선과 곡선, 선과 면, 평면과 공간, 상이한 온갖 오브제가 생명을 향한 일원적 세계로 서로 어울려 서정추상의 조형을 이루어 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양해웅은 제 깊은 곳에 응시하면서 좀 더 깊숙하게 스스로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움의 작가다.

그는 상처 난 인간의식을 어루만지면서 상처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리고, 훼손된 자연에서 훼손된 인간의 본성을 만나고, 이를 조형탐색으로 걸려내어 치유하는 길을 제공한다.

그러기에 그가 늘 위치하는 곳은 어둠이다. 밤하늘이거나 잠마진 곳, 그리고 사람의 자취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인도다. 처음의 모습을 보기 위해 어둠 속에 앉아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는 것이다.

투박치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답답해도 우리가 나아갈 길이 되는 한 올 빛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이라고 했다.

이 점에서 양해웅의 삶의 인식은 어둔 곳에 있으면서도 그의 시선은 항상 밝은 곳을 향해 있기에 건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래적인 처음을 바라보려는 안목으로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생명력을 담보하는 작업을 한다.

그의 작업을 들여다보면 그가 나중에 정착할 곳이 어디인지 짐작할 수 있다.

탄생과 존재, 삶과 소멸, 해체와 생성의 양면



성을 자유롭게 오가며 본래적인 생명을 향한 미학적 접근으로 훼손된 생명의 부활을 꿈꾸고 있음을 눈치 챌 수 있다. 그의 회화적 오브제와 미감의 원리, 공간과 평면의 미적인 질서 확립을 보면 그가 작업의 중심에 놓아두려는 상징의 실체가 분명해진다.

빛과 바람의 순환이 있는가하면 인간과 자연의 어울림이 있고, 탄생의 울림이 있는가 하면 소멸의 아픈 몸짓이 보이고, 훼손된 생명의 현상이 보이는가 하면 상생과 공생의 생존이 보인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 만들기는 잃어버린 존재의 원형 찾기와 새로운 생명미감 준비에서 시작된다. 원시적 생명이 갖는 경외와 장중함이 드러나

그는 화가이면서 과학자가 된다 투박하면서도 자연의 섬세함이 담겨있는 작품 직선과 곡선, 선과 면, 평면과 공간, 상이한 온갖 오브제 생명을 향한 일원적 세계로 어울려

는가 하면, 한발 물러서서 바라보면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숨결과 신비로움이 살아 숨 쉬고 있다.

세잔으로부터 출발한 입체회화의 에너지를 벗어나 동양정신과 함께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일원적인 조형세계를 선보일 것이라는 당찬 의지가 여기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손길에는 생명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지문이 있고, 자연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자연으로 통하는 길이 보이고, 실존에서 상상으로, 상상에서 실존으로 자유롭게 오가는 즐거운 만남이 있다.

무릇 예술인이 갈구하는 것은 자연과의 완전한 합일이다.

그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조화로운 세계를 꿈꾼다. 위기에 직면한 인간의 정신을 재생하고 부활시키려는 몸부림, 그의 작업은 자연의 원형에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늘 고민한다. 자연은 그대로 생명의 근원적 질서이며 인간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한시적 존재라는 인식이 작품의 전반에 흐르는 기류다. 인간의 삶과 현존에 대한 직선적 세계관을 생명미감에

걸어들으로써 일원적인 생명의 세계, 즉 자연과 인간이 합일된 상상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

그의 생명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상상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일원적 생명의 찬란한 빛을 산란시킨다.

그는 동양적 자연관을 배경으로 인간에 대한 사유를 폭넓은 상상력으로 펼쳐간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을 해명하고 예견하기도 한다.

추상적 조형의 입체작품이 주류를 이루었고 조각, 설치, 부조, 평면작품, 그리고 화선지에 먹 그림, 서예, 크로키 등 조형예술 전반에 걸쳐 폭넓게 작업을 하는 이유도 경계를 허무는 소통의 미학으로 인간과 자연을 화해시키고자하는 조형 장치다.

그의 이러한 작업은 "시간時間의 유적遺蹟" 선상에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깊은 성찰을 형상화하고 있다.

고정관념은 때론 진실을 왜곡하게 된다.

삶과 생명의 실체를 보기 위해 조형적 관습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미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오브제로 활용하여 생명의 재생과 복원을 꿈꾸는 양해웅, 그는 훼손된 생명에 온기를 불어넣고, 나아가 자연과 인간정신의 생체기를 아우르는 치료적 메시지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인간 최초의 언어는 세상의 모든 대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자연 언어였다.

자연이 지닌 메시지에 대해 해석이 가능하면서 그 자연이 하고자 하는 말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언어가 바로 자연 언어다.

양해웅은 그 자연 언어를 듣기 위해 눈을 뜨고 귀를 세운다.

형용해진 자연의 선순환을 꿈꾸며 생명의 본래적 감동을 규명해 가는 양해웅,

그는 지금 자신만의 독창적인 조형어법으로 자연과 인간이 합일된 상상에 자라잡은 심미적 감동과 울림에 닿기 위해 물소리, 바람소리, 풀벌레 소리, 나무와 풀, 그리고 인간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대장정을 가고 있다.

그의 조형적 감도가 자연과 생명을 어루만지는 체험의 열선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작품 면면이 울림일 수밖에 없다.

여수일보 구독자 광고 문의 ☎ 061)654-8885

www.ysibtv.co.kr

변호사 정기명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김재신**

여수시 망마로 42 장수빌딩 6층
☎ 686-7060 ☎ 686-7063 ☎ 010-3741-4969
E-mail, jsk4969@hanmail.net

힘센장어

장/어/요/리/전/문/점

대표 **공경택**

여수시 소라면 죽림중앙로 30-53
Tel. 061) 691-2068
H/P. 010-5656-1814

전국 물류 전문업체
(유) 광원물류

과장 **송영선**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87 (주상동)
010-7942-7880

T. 061)685-7880
F. 061)686-8806
ys_song1064@naver.com
gwang-won88@hanmail.net(회사)

재민합성
친환경계면활성제

대표 **김미화**

전남 여수시 신기남1길 31(2F)
Tel. 061.685.8317
Mobile. 010.3806.8317

용인대 석사
해성 유소년스포츠클럽 태권스쿨

대표 **김종길**

무선점 662-7766, 692-0006
도원점 684-1313
휴대폰 010-4817-5007

자연한의원

대표원장 **이준형**

전남 여수시 학동 59번지(무선로 28)
도개비시장 입구
Tel. 061)691-8275
Fax. 061)691-8270

주차 : 롯데캐미탈 사택 주차장 무료

PHONAK
life is on
세계판매 1위 브랜드

원장 **박경민**

여수난청센터
59752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36
전화 **641-5528**
핸드폰 010 4661 5528
www.phonak.kr

PURE COCO
PASSION FOR BEAUTY

CEO **김미경**
KIM MI KYUNG
H.P 010 9328 3013

Tel 061 681 8282
Fax 061 921 6262
E-mail lol63@naver.com
전남여수시무수4길18-1
@purecocosoap (유어코코)

S-OIL 에스.오일 장군주유소

대표 **임성주**

전남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350-2
전화 061) 684-6565
Mobile 010-6614-3690

정품 · 정량만 판매합니다.

건축사 사무소 미래
건축설계 · 감리 · 기획 · 시공상담

건축사 / 대표 **추현호**

전남 여수시 시청동2길 2(3F)
TEL : (061) 685-6200
FAX : (061) 685-0020
H·P : 010-3613-0888
E-mail : hr-cho1004@hanmail.net

MEERE ARCHTECS & ENGINEERS

노인장기요양보험
행복한 집 노인요양시설

원장 **이우근**

전남 여수시 여천길 39 (내동마을)
TEL : 061) 691-3724
FAX : 061) 692-3724
H·P : 010-7168-3714
E-mail : wookun8711@hanmail.net

SK telecom
항상 행복을 드리는

대표 **김유수**

전남 여수시 동문로 5 (중앙동 674)
TEL. 061-666-2030
FAX 061-666-2010
H/P 010-4605-4477

world
럭키대리점(본점)



걷고 신는 순간 생기는 불균형 걷기 운동으로 잡아야

여수시보건소 걷기지도자 양성교육



여수시보건소가 전문적인 걷기 운동의 테크닉과 노르딕 워킹, 걷기 동아리 운영, 올바른 걷기방법 등의 교육을 지난 23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5개 교과목 5시간으로 보건소 1층에서 진행됐다. 전문업체 위탁 교육으로 YK 운동센터 유용권 이학박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올바른 걷기동작 습득을 위한 교정운동과 걷기운동을 위한 원리 등 이론과 실습이다.

유용권 박사는 “걷고 신는 순간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다.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게 올바른 걷기다”라고 말하며 발의 근육과 발의 불균형 현상 등으로 인한 통증이 왔을 때를 예로 들어가며 완화를 위한 교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교정운동을 설명했다.

노르딕워킹의 효과로는 일반 걷기에 비해 40%이상의 추가 칼로리가 소비되고 남녀노소 누구

나 할 수 있는 운동임을 강조했다. 근육강화의 효과와 함께 골다공증예방에 탁월한 노르딕워킹은 아의 수업으로 용기공원을 한 바퀴 돌기도 했다.

근육과 근막에서의 긴장을 이



완시키는 근막이완술로 폼롤러를 이용해 긴장 부위에 깊은 압박을 유지함으로써 효과를 내는 억제 기법을 할 때는 교육생들이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했지만 곧 시원해지고 한 발로 수평잡기가 수월해지는 등 현장에서 효과를 보기도 했다.

걷기지도자 양성교육에 참여한 시의회 백인숙 환경복지위원장은 “여수 시민들을 위해 이렇게 좋은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좋은 걸 걷기 할 때 걷기 서포터즈로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최항란 기자

지도자를 양성하여 지역의 건강 전파자로서 걷기지도자 중심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다음달부터 여수 좋은 길 걷기 할 때 걷기 서포터즈로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최항란 기자



전라선 옛 기차길 좋은길 걷기

만성리 간이역~소라 덕양까지



여수 만흥동 만성리 옛 간이역에서 소라 덕양까지 전라선 옛 기차길에 조성된 걷기 좋은 길 행사가 다음달 16일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구 미평역에 만들어진 미평공원에서 소라면 구 덕양역 사이에 있는 구 여천역의 원학동 공원까지 걷는다.

이곳 전라선 옛 기차길은 쌍봉시가지에서 병풍처럼 펼쳐진 학산과 수문산 자락 아래 나란히 지나고 있고, 중간 중간 쉼터와 벤치가 설치되어 시가지를 감상하면 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다. 이와 함께 시가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학산과 수문산 안에는 걷기 좋은 등산로가 숨어 있다.

학산과 수문산 등산로는 둔덕 한려아파트 건너쪽에 사방댐 옆 여수 공고 농장 가는 길로 곧장 오르면 수문산성으로 향하고 이어서 쌍봉시가지를 조망하며 걷다보면 선원동 원학동 공원으로 내려온다. 3월

23일은 구 미평역에 만들어진 미평공원에서 만흥동 만성리 옛 간이역까지 걷는다.

구 미평역의 미평공원에서 각종 운동기구와 벤치 등 쉼터가 중간 중간 설치되어 있는 길을 따라 미평동 구름다리를 지나고 도로변 보호수 그늘아래 쉼터를 힐끔 보고 지나치면 어느새 여수시의버스터미널 뒤를 지나고 진남체육공원과 만흥동으로 있는 380m의 기차터널에 다다른다.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해 걷는 이들에게 작은 위안을 주는 기차터널 속을 통과하면 분주하게 오가는 차량행렬의 미평 시가지와 전혀 다른 천성산 아래 만흥동 논밭이 펼쳐진 농촌 풍경으로 바뀌고 걷다가 지친 이들이 쉴 나무 그늘 아래 벤치와 화장실을 지나고 곧장 멀리 만성리 앞바다 보이는 만성리 간이역까지 이어진다.

여수보건소 건강증진과 이주리 과장



KOLON FASHION

GGIO²

지오투/브렌우드

정장/캐주얼/취업/입학/혼주예복 전문

지오투
여수점

663-1414

교동 롯데리아 앞



“여수 남산공원 자연친화형 근린공원 조성에 문제 있다”

서완석 시의장, ‘국토부 특례법민간투자규모 200억원이상’ 여수시민은 알고 여론조사에 응했는가?



▲서완석 여수시의장

여수시가 개발 방식을 놓고 주민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남산공원. 지난달 24일 코리아리서치에 용역비 1,900만원을 들여 의뢰한 시민 51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3.3%가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을 선호했다. 반면 “관광형 랜드마크 공원”을 선호하는 응답은 36.7%로 조사됐다. 이에 여수시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자연친화형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은 지속 될 전망이다.

국토부에서 현지실사 등을 거쳐 2018년10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여수시 대교동 남산공원부지를 해양관광진흥지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11월부터 국내외 민간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준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완석의장은 “남산공원을 우리시 재정 210억원(시비) 이상을 투자해 일반적인 도시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것 아니라 이 특별법의 특례와 국토부의 국내외 투자설명회 지원을 받아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해 여수를 상징할 수 있는 관광형 공원을 조성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방세 수입 증대, 부지 매각비 및 공원 조성비 등 약 400억원 이상의 시비도 절약하는 등 막대한 경제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론조사에 앞서 여수 시민에게 자세히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응했던 여수시민 대다수는 남산포차 이전지로 선정된 기로 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은 지속 될 전망이다.



고, 석창 여수 석보자리도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며 이렇듯 자세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여론조사 결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행정의 중대한 과오와 실패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음을 강하게 어필하고 나섰다.

또한 서완석 의장은 “시민여론 조사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전문가와, 주민대표,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산공원의 발전방향을 심사숙고하고, 절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란 기자

백인숙의원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의 심각성에 대하여 시민들과 대화의 시간

여수시가 자연친화적인 여수를 만들어 자연환경과 우리고유의 전통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데 노력

지난 17일(일) 여수시의회 백인숙 환경복지위원장은 시민봉사자들과 함께 옛철길공원 쓰레기분포도 모니터링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의 심각성에 대한 대화를 하며 봉사를 했다.

백인숙 의원은 “우리 여수는 지난 2012년 기후변화를 주제로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기념비적인 성공사례를 갖고 있다”면서 “여수의 더 큰 미래 도약을 위해 30만 여수시민께서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지 선정에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저탄소



▲봉사를 마치고 시민들과 함께

녹색성장 기초에 부응한 여수세계 박람회와 기후변화협약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총회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남중권 공동 개최가 필요하다고 했다.

백인숙 의원은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바다와 지구를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해양미세플라스틱의 저감 방안 노력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UN이 지난해 6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 오염으로 신음하는 지구 환경생태계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플라스틱 오염 퇴치’의 해로 정한 내용과 함께 현

재 플라스틱 폐기물 수율이 중단되어 플라스틱오염의 심각성이 가중될 것이라며 안타까움과 걱정을 앞세웠다.

이에 우리시도 쓰레기 저감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사)ECO-PLUS21과 같은 단체 중심으로 여수시도 클린도시 캠페인을 시민 스스로 참여할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

백인숙 의원은 시민들에게 여수시가 자연친화적인 여수를 만들어 자연환경과 우리고유의 전통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최형란 기자

‘망언 제조기’ 지만원과 자유한국당 “5.18영령들과 국민께 사죄하라!”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 SNS에 올린 글

주승용
2월 9일 오전 11:35 · 📍

<망언 제조기> 지만원과 자유한국당은 5.18영령들과 국민께 사죄하라!
어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이 5.18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국무인사 지만원씨가 나와 <망언>을 했습니다.
망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며 “시위대를 조직한 사람도, 지휘한 사람도 한국에는 없다”
“5·18 주역들은 북한인과 고정간첩, 적색 내국인으로 구성됐다”며 “작전의 목적은 전라도를 북한 부속지역으로 전환해 통일의 교두보로 이용하려는 것”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점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 이종명 의원도 지만원씨 망언에 덧붙여 “폭동이라고 했던 5·18이 정치적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고 했고, 같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역시 “중북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만원씨야 원래 <망언의 제조기>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까지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직접 피해자들이 버젓히 살아 있는 오늘에도 이런 망언에 동참했다는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적폐정당이라고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건에서 보여준 그들의 <인식과 철학>때문입니다.
지만원, 김진태, 이종명,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께 당장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어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이 5.18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국무인사 지만원씨가 나와 <망언>을 했습니다.
망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며 “시위대를 조직한 사람도, 지휘한 사람도 한국에는 없다”
“5·18 주역들은 북한인과 고정간첩, 적색 내국인으로 구성됐다”며 “작전의 목적은 전라도를 북한 부속지역으로 전환해 통일의 교두보로 이용하려는 것”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점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 이종명 의원도 지만원씨 망언에 덧붙여 “폭동이라고 했던 5·18이 정치적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고 했고, 같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역시 “중북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만원씨야 원래 <망언의 제조기>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까지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직접 피해자들이 버젓히 살아 있는 오늘에도 이런 망언에 동참했다는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적폐정당이라고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건에서 보여준 그들의 <인식과 철학>때문입니다.
지만원, 김진태, 이종명,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께 당장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지운산업

(유) 지운산업

건설중기 임대 · 대여/토공 · 철콘
골재 도 · 소매/잔토처리

대표 이수한

전남 여수시 성산6길 54-1, 2층(화장동)
Mobile. 010-4030-8267
Tel.061)686-8267 Fax. 061)686-8268
E-mail. lk6516786@naver.com

금호석유화학 의치무료시술

지난 2월19일 오후, 금호석유화학 여수시에 3000만 원 후원증서 전달식 가져

후원금은 복지 위기가구 의치무료시술 비용으로 사용 계획

금호석유화학(송석근 부사장)은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경 여수시에 의치지원 후원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금호석유화학에서 후원한 금액은 3000만 원이다.

시는 후원금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현금지정기탁 후 만 65세 미만 복지 위기가구 중 자활의지가 높은 분을 선정해 3월부터 의치무료시술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석근 부사장은 “기업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권오봉 시장은 “이번 후원이 복지 위기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사회공헌사업이 더불어 잘사는 여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의치시술무료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산타원정대, 교복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금년 환경기초조사사업 12개 연구과제 추진

섬진강 염해피해 원인조사 등 총 12개 과제에 22억원 투자
연구기관은 3월 중 나라장터를 통과 입찰공고 후, 선정할 예정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환경 관리 기초자료 조사 및 환경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등을 위해 금년 12개 연구과제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기초조사사업은 2003년부터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여 그간 총 191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금년 환경기초조사사업은 계속 과제 6개, 신규과제 6개 등 총 12개 연구과제에 대해 22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6개 계속과제는 10억원이 투자되며, 전년도에 이어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영산강·섬진강수계 지류·지천 수질·유량 모니터링’ 등 중·장기적인 수계 물환경 기

초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6개 신규과제는 12억원 규모로, ‘영산강 하구 해수유입에 따른 영향 예측 및 하구 복원 방안 제시’ 등 지역 환경 현안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연구하는 사업이다.

신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기관은 3월 중 나라장터(www.g2b.go.kr)에 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기관의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평가 후 최종 선정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최종원 청장은 “환경기초조사사업은 지역 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정책 수립·추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2018.6월 물관리 통합에 따라 수질·수생태계 분야에서 수량부담까지 보다 유용한 물관리 자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원기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 ‘시민 참여권’ 실현 기대

문갑태 의원 발의, ‘시민참여 조례안’ 통과



▲문갑태 의원

서 최종 의결됐다.

문갑태 의원은 시정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여수시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여수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참여의 기본사항을 정한 여수시

민 참여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민참여 제도 운영에 대해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또한 시의 주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회, 설명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조례개폐 청구권자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인 대표가 여수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이나 조

례에 위반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토론회를 거친 사항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문갑태 의원은 “시민의 기본 권리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생각해 왔던 바를 조례로 담았다”면서 “시민들이 주요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진정으로 필요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일자리창출지원 협약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장영조)은 2019. 2. 20.(수)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와 함께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가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고용환경개선 등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장영조 지청장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지자체들이 고용관련 지역의 현안문제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여타 지자체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2월 19일 오후 6시 디오션 호텔에서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제 12대 공경택 이사장 취임식이 있었다.

공경택 이사장은 2019. 2월 1일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제 12대 임원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공경택 이사장은 2014년 2월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제 11대 이사로 선출되어 예금, 적금, 공제 등을 맡아 유지하여 새마을금고 발전에 많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제12대 공경택 이사장 취임

지역밀착형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자리매김

은 기여를 하였다. 평소 통기타 연주 등 음악에도 관심이 많은 공경택 신임 이사장은 자선공연으로 얻은 수익금을 여수지역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꾸준한 기부를 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의 정신인 자조, 호혜, 공동체 정신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라는 평판이다. 공경택 이사장은 2018년말 125,939 백만원의 자산을 임기말인 4년 후에는 2,000억원으로 성장시키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여수한려새마을금고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한려새마을금고는 지역기반 금융기관으로서 9년째 민관의 자발적 협력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친서민 정책인 지역희망공헌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복지사업(집수리, 지역

아동센터 등 사업비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금리 임대보증금대출, 소상공인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 및 정책자금대출을 통해 지역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서민 및 탐강 프로젝트에 동참해 455백만원의 채무를 탕감하여 장기채무자들이 새 출발할 수 있는 지원을 하였다.

매년 사랑의 줌소리 운동을 통해 모금한 성금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어 따뜻한 사랑을 나누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요가수업을 진행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합원 및 일반거래회원 등 14,600여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즉심본점, 덕양지점, 울촌지점에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여수한려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12대 공경택 이사장의 취임으로 더욱 따뜻한 지역밀착형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으로 내다본다고 했다.

김영주 기자

액운을 쫓고 복을 부르는 지신밟기

여수시 쌍봉 풍물단, 정월 대보름맞이 ‘지신밟기’



여수시 쌍봉풍물단이 14일부터 16일까지 정월 대보름맞이 지신밟기와 쌍봉당산제를 했다. 행사 장소는 쌍봉동 주민센터 앞 당산나무와 향화마을 등 쌍봉동 일원이다.

쌍봉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해마다 치르는 당산제지만 2019년 기해년에 맞이한 당산제는 특별하게 여긴다. 이 행사를 박건문 쌍봉동주민자치위원장 주

관으로 상쇠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김석모 단장과 함께 창단된 쌍봉풍물단은 현재 2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8년간 봉사해 앞장서고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김태환 쌍봉동장은 “정월대보름맞이 당산제 및 지신밟기로 여수시민의 안녕과 간 가정의

만사형통을 바란다.”고 했고 박건문 쌍봉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축원의 장,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행사 수익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겠다”고 말했다.

김석모 풍물 단장은 “액운을 쫓고 복을 부르는 지신밟기를 계승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동림 시민기자

당신의 좋은날

MG새마을금고

언제나 변함없는 아내의 사랑처럼

새마을금고가

늘 곁에 있습니다.

위치: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중앙로 30-55(삼일중학교 앞)

- 죽림본점 T. 061-684-2511
- 덕양지점 T. 061-683-9005
- 울촌지점 T. 061-683-6717

여수한려새마을금고



詩 읽어주는 남자

매화

막, 진통이 시작 되었다
난산이다

마르고 굵은 가지까지 힘을 쓰기에는
목은 세월이 너무 무겁다
지쳐보고 있던 달빛
입술이 바짝 마르고
산파로 나선 바람
제가 더 용을 쓰고 있다

누구나 가슴에 꽃망울
하나 씩 배고 있다
그것이 꿈이던 추억이든
또는 그리움이든
만삭의 저울
무거운 걸음으로
강을 건너고
기다림은 언제나 아름답다

마지막 힘으로 비늘잎 찢고
불두덩이 우욱 뜰으면
숨 죽이고 있던 별 하나
쨍쨍게 달려들어
꽃이 된다

별 하나 쨍쨍게 달려들어 꽃이 된다

/ 詩詩한 이야기 /

매화는 일찍 피기에 조매(早梅), 추운 날씨에 피어서 동매(冬梅), 눈 속에 피기에 설중매(雪中梅)라 하고, 꽃의 빛깔에 따라 하얀 것을 백매(白梅) 붉으면 홍매(紅梅)라 부르며, 꽃에 중점을 두면 매화가 되지만 열매에 중점을 두면 매실이 되는 유실수(有實樹)이다.

지리산 자락 산정군 단속사에 가면 강회백이 심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정당매(政堂梅)와 함께 그 부근에서 남명매(南冥梅)와 원정매(元正梅)등 산청삼매를 만날 수 있다.

몇 해 전 여수갈무리문학회 회원들과 문학기행을 갔을 때 640여년이 된 정당매가 고사 된 결가지에서 핀 매화를 보면서 고매하고 은은한 향기에 압도 되었던 기억이 있다. 이성배시인은 그것을 진통 끝에 난산이라 했다.

우주의 집중으로 잉태 한 꽃의 탄생은 신비하고 위대하다. 어디에 품었다가 저 많은 꽃들을 피워낼까? 먼 길 걸어왔을 저 많은 꽃들,

‘마지막 힘으로 비늘잎 찢고 불두덩이 우욱 뜰으면 숨죽이고 있던 별 하나 쨍쨍게 달려들어 꽃이 된다.

가장 먼저 남쪽에서 봄을 알리는 전령사로 추위에 굴하지 않고 꽃을 피우는 매화를 선비들은 매경하고불매향(梅經寒苦不賣香) ‘매화는 추위와 고통을 겪어도 향기는 팔지 않는다’ 하여 사군자의 으뜸으로 여겼다.

매화정신, 매혼(梅魂)을 매군(梅君)이라 하여 자네 또는 군자로 사랑했던 것이다.

중국 송나라 임포는 절강의 소호에서 처자식 없이 매화를 심고 화를 기르면서 살았다고 한다. 그에게 매화는 아내요 학은 자식이었다. 그래서 풍류를 즐기는 이러한 삶을 매처학자(梅妻鶴子)라 했다.

막 매화꽃소식 매신(梅信)이 전해져 오고 있다. 하얗게 꽃 핀 매화나무 터널 아래서 달빛과 함께 그윽한 매화주 한잔 하고 싶다. 그러면 내 가슴에도 매화꽃 피려나 ‘누구나 가슴에 꽃망울 하나씩 배고 산다. 그리고 만삭의 저울 무거운 걸음으로 강을 건너’ 고 반짝이는 꽃이 되고자 한다. 향기가 되고자 한다. 열매가 되고자 한다. 스스로 빛나고 스스로 아름다워지고자 한다.

우동식 시인



이성배

싱어송라이터 서혁신의 눈부신 음악활동

‘불모지서 디딤돌 세운다는 각오’로 광복 행보
작년 여수 스튜디오 오픈…최근 싱글앨범 발매

전문음악스튜디오가 없는 음악 불모지에서 싱어송라이터 음악가가 현실을 스스로 극복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화제의 주인공은 여수를 기반으로 최근 싱글앨범까지 발매한 싱어송라이터 서혁신이 바로 그다.

여수, 순천, 광양 지역에서 광복 행보를 보이고 있는 서혁신은 열악한 지역사회의 음악여건에 답답

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이미 지난해 말 ‘비밀의 정원 Studio in Yeosu’라는 음악스튜디오를 여수에 오픈하며 대 활약을 예고했다.

전생의 인연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담고 있는 신곡 ‘Waiting for you’는 가야금 연주자 이혜령 씨 참여로 더욱 처연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프로듀서이자 싱어송라이터답게

작사, 작곡, 편곡, 녹음을 홀로 해결한 서혁신은 한 달에 한 곡의 싱글앨범을 발매하는 것을 목표로 앨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지역 뮤지션들과 다양한 협연으로 음악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여수바다음악제에서 테너, 바리톤 등 성악가들과 함께 전쟁의 종식을 바라는 자작곡 ‘War is over’ 등의 노래로 공연하기도 하고 라디오 게스트, 실용음악과 강사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강기우 시민기자



석보·창고·장시의 기능으로 활용…시대적인 한정성과 희소성을 지닌 귀중한 유적



유적 따라담기

난중일기에 나오는 여수석보-사적 제 523호 (상)

- 민대기 문화재학박사 -

난중일기에도 석보창에 관한 기록이 임진4월18일(정미)와 병신 10월5일(무진)에 전해지고 있다. 임진4월 18일(정미) 아침에 호림(자녀에 순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병방이 석보창에 군사를 인솔하고 오지 않으므로 붙잡아 가두었다).

병신10월 5일(무진) 호림(남양 아저씨가 집안에 제사가 있어서 일찍 부르기에 다녀왔다. 남해현령(박대남)과 함께 이야기 했다. 비 올 징후가 많다. 순천부사(배응경)은 석보창에서 잤다).

여수 석보(국가사적 제523호, 2012.06.22 지정)는 여수시 여천동 868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은 행정구역상 석창이라는 명칭은 남아 있지 않지만, 주변은 모두 성내마을 또는 석창이라 불린다. 이곳은 여수 각 지역과 인근 순천시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다.

석보는 외적이나 왜구의 노략질에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석축 시설물로서, 조선시대 수많은 진보 가운데 하나였다.

진보란 흔히 군사를 주둔시키는 곳 내지 그러한 목적 아래 축조된 성보라는 의미다.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진보를 邊鎮城 즉 변방의 성보로서 군사가 진주하는 곳이라 했다.

이공익의 『연려실기술』에서 외적을 방비하고자 각급 군관의 지

휘 아래 군사를 주둔시키거나 혹은 그러한 목적으로 축조된 방어 시설 중 내륙의 산성을 제외한 성보들은 모아 진보라는 항목으로 정리한 것이다.

여수 석보의 성곽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에 보이는데, 「목책으로 진흙을 바른 성(木棚塗泥城)이며, 둘레는 143보」라 하였다.

여수지역에 석보가 들어서는 단초로서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존재가 조선 초기 순천도호부에 위치하였다는 소위 ‘목책도니성’이다.

이 성은 현전하는 자료에 의한 석보가 등장하기 이전 여수시의 성보시설로서 기록에 전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공식기록에서 여수를 관장한 성보로는 목책도니성이 최초이며, 바로 그 뒤를 이어 석보가 등장한다.

목책도니성은 변방의 연안지역처럼 별다른 방어시설이 없는 마을의 주민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쌓은 보루였다.

『세종실록』97 (세종24년 8월4일 신유)의 기록에 따르면, 읍성과 멀리 떨어져 방에 취악한 바닷가 촌락에다 지역별 실정에 맞추어 ‘목책이나 석보 혹은 토축’을 마련함으로써 왜적의 급작스런 출현과 노략질에 대비토록 하였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여수



석보는 둘레가 1,479척이고, 높이는 10척 이내이며 3개의 우물이 있다고 서술되었다.

여기서 석보란 『여지지』에 기술되어 있는바 석성이며, 여수 석보란 순천부 동쪽 60여리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과거의 여수현이다.

따라서 성곽이 세울 때는 목책이었었는데, 성종 때는 석성이었다는 것으로서, 현재의 석성은 세종대에서 성종대 사이에 쌓아진 것으로 보여 진다.

여수 석보의 존재를 알리는 기록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세조 3년(1457)이다.

『세조실록』6 (세조3년 정월 16일 신사) 하삼도의 여러 가지 진포를 몰소 살핀 도순찰사 등이 보고한 조목들 가운데 전라도 순천 돌산포의 경우 그 동쪽에 내레가 있고, 북쪽에 여수 석보가 있는데 바다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방에에도 긴요하지를 않으니, 이제 돌산포를 혁파하고 그 성군은 내레와 여도에 나눠 소속시키도록 하소서에 나오는 여수 석보가 그것이다.

채의 민가가 있었다.

또한 석보 내에는 서쪽 성벽 일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밭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석보의 외부는 논으로 활용되어 잔존유구의 일부가 훼손되기도 하였다.

여수석보는 여수석보성, 석창성, 장시 등으로 변화를 거듭한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여수시에서는 그간 유적의 보존과 정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였고, 여수석보의 정비를 위한 지표 및 발굴조사를 지금까지 총 3차례 실시하였다.

2003년 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등 3개의 조사기관이 성곽,해자,성내부를 대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성벽을 비롯한 동·남문지 및 해자와 건물지 3동과 집석유구 2개소 등이 조사되었다.

2007년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서벽과 수구,해자,건물지,우물,연못지 등이 조사되었다.

2014년부터 시작된 3차 조사에서는 중앙중심부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26기의 주거지 유적 및 유물들이 조사되었다.

여수석보는 성벽과 성문 그리고 성내의 각종 건물지와 외부의 해자와 성내의 주거지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고, 현재는 유적성격의 파악이 가능한 정도로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다.

특히 여수석보의 주요시설인 성벽을 비롯한 성문지, 그리고 성내 건물지 등은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유적전체가 뚜렷이 확인되는 정도로 상대적으로 잘 남아 있어 다른 성곽에 비해 여전히 양호하다.

다음호에서 계속

고기 집딸

전문점
숙성한우



여수 최초 워터에이징 한우
부드럽고 깊은 풍미의 숙성한우와
정갈하고 깔끔한 밑반찬 한상
그리고 전복 한우된장찌개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숙성한우	
갈비살 (100g)	23,000원
꽃등심 (100g)	23,000원
안창살 (100g)	23,000원
육회 (150g)	20,000원
모듬구이	
小(300g)	68,000원
中(400g)	90,000원
大(600g)	134,000원

차림표	
후식	
냉면	4,000원
누룽지	2,000원
된장찌개와 밥	2,000원

따뜻한 나눔을 전하는 기업

지역 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수익 일부를
지역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합니다.



대표 위진영, 김남대

전화 061)681-4278 / 010-9461-1259 / 010-8622-1259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8길 17

(롯데마트 공영주차장 뒤편, 구 짬뽕의 전설)

임용식원장 공유재산 위반 원상회복 명령 받아

무상 사용허가 된 문화원 여수시 승인없이 변경 사용

임용식원장(여수시문화원장)이 2018년도 여수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보를 받았다.

여수시로부터 무상 사용허가된 문화원은 여수시 공유재산으로 시의 승인없이 사용 또는 수익목적 변경하거나,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 하는 것,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것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여수시문화원장은 시로부터 무상 사용허가된 문화원 2층을 여해재단 사무실로 무단 전대 사용하고 있다.

문화원 1층 생활유물박물관과 건물내부에는 문화원의 개인 민속 소장품을 문화원소장품과 함께 전시 보관하여 시 공유재산을 개인전시실처럼 사용하고 있다. 관람전시에 필요한 정리나 관람에 필요한 민속품의 설명 등이 전혀 없는 상

태로 전시 보관하고 있다.

또한, 문화원 주변 화단을 무단으로 훼손하여 화단과 나무가 있어 야할 자리가 열 건물의 통로를 만든 상태가 되었다.

이에 여수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상 사용허가조건의 목적과 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여수시문화원장에게 통보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수시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하여 여수 지역의 문화적 센터 역할과 여수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문화 예술기관으로 비영리 특별법인이다.

여수시문화원은 향토 문화의 계승 및 발전과 향토의 각종 문화 행사 등을 전승하여 현대 문화와 접목시키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민대기기자



여수해경, 낚싯배 음주운항 및 5대 위반행위 일제단속

낚시 어선 이용객을 신고 출항한 선장, 혈중 알콜농도 0.053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2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낚싯배 이용객 증가와 함께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 낚싯배의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에 대한 일제합동 단속에 들어간다"라고 22일 밝혔다.

이 합동 단속 기간인 2월 23일 오전 6시52분경 돌산 군내 항 송도해상에서 여수낚싯배를 운항하던 선장 S씨에 음주운항 해사안

전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이는 S선장에게서 술 냄새를 인식한 K씨의 제보로 출동한 경비정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S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053의 수치였고 전날 술을 마신 뒤 자고 다음날 새벽 낚시어선 이용객을 신고 출항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본다고 해경측은 말했다.

제보를 한 K씨는 "여수낚시협회 간부급인 사람이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운항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승객 명단 제출시에 해경이 좀 더 신중하게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상의 선박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있다.

한편 여수해경은 낚싯배 불법



행위 근절과 안전문화가 정착 될 때까지 매일 2회 이상 불시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향란 기자

여수시의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근거 마련

민주화운동 기념·희생자 추모 사업, 민주시민의식 고양 교육·홍보사업 등

지난 8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만민 발원과 관련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의원은 "여수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여수시민의 민주정신을 높이고 우리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다지는 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최근 논란이 된 5.18 민주화운동 폄해 발언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고 일부 몰지각한 행태의 발로"라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4일 소관 기획행정위에서

도 조례안 심사 시 민주화운동 기념 추모사업과 여수 지역 내 역사적인 민주화운동 사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소속 위원들 역시 조례 제정 취지에 동의했다.

또한 민주화운동 사업 위탁 범위를 법인 또는 단체뿐만 아니라 '기관'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사안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을

여수지역에서 발생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 정의하고, 여수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과 희생자 추모사업, 여수지역 민주화운동 정리·계승사업, 민주시민의식 고양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여수시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

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이 밖에도 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간사, 실비보상, 포상 등을 규정했다.

전창곤 의원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역사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선순선열의 숭고한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록 늦었지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물려줄 수 있는 역사의 산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기자



N민목소리-호루라기

남산공원개발 시민여론조사만으로 결정

여론조사로 남산공원 개발방향을 정하겠다는 것은 집행부가 자신들의 편의 또는 비검함을 숨기기 위해 시민들을 감동으로 몰아가는 거라 생각한다.

여론조사가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순간 이는 대단히 폭력적인 형태로 변합니다. 이기고 지는 싸움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어찌되었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라는 공론의 장이 있는데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은, 첫째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둘째 집행부가 비검하다는 거다.

즉, 정책에 대한 고민이나 의사결정에 우유부단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는 최소한 여수시의 도시공원 또는 남산공원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집행부는 시민들에게 그 의견을 밝히기 위해 다른 도시사례도 공부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집행부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 시민들에게 충분히 연구가 된 수

정책에 대한 고민이나 의사결정에

우유부단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가!

성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시민들의 여론조사만으로 의사 결정한다면 그 정책은 실패할 최악의 정책이 될 개연성이 많다.

따라서 여론조사보다는 의회에서 집행부, 전문가 및 의원들이 참여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제안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집행부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아니하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적어도 남산공원이 여수지역에 공원으로써 그리고 지역발전에서 어떤 부분을 채워줘야 하는지, 그런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또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민자가 투입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한다. 그런데 집행부는 현재 그런 고민이 없는 상태로 모든 책임을 시민에게 넘기고 있다.

시민들이 전문가로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이런 중대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충분한 연구된 기본정보도 제공되지 아니한 채 일반시민 여론조사로 좋은 정책이 가능하겠는가?

여론조사가 자칫 대화와 공론화를 차단하는 수단이 된다면 여수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대화, 공론화를 거친 다음에 다양한 정책을 두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집행부는 담당공무원, 전문가 등과 상의하여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연구하여 의회와 시민에게 제안하고 그 정책이 채택되면, 실행을 하는 것이 옳다.

이미 5급 이상 워크숍에서 남산공원을 랜드마크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이 있었다. 그런 제안을 받았으면 좀 더 숙성시키는 과정을 통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았다.

권오봉시장은 의회 내분을 이용하여 선출직 시장으로서 이득을 보려고 의회 내 대결구도를 형성하는 것인가. 즉, 여론조사결과, 시민들은 이것을 바라고 있다고 명분삼아 의회의 대결구도를 만들어 이득을 얻겠다는 속셈으로 느껴진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남양포차 이전 문제다.

결국 숙성과정이 생략되다 보니 여론조사 부당성 지적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진작 좋은 정책수립을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여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되어 엉뚱한 데 힘을 쓰고 있으니 답답하다.

여수시민 김○○



보성자동차
Bosung used car firm



(주)모모렌터카 서교지점
MOMO Car Rental Co.,Ltd.



보성테크 네비게이션
Bosung Tech 블랙박스



서교주차장
Seo Gyo Parking lot

대표 문경일 010-9450-7529



본점 전남 여수시 서교1길 6 (서교동 658)
TEL: 061)686-7301 FAX: 061)686-7303

인터넷 www.bscar.kr E-mail moonkyungil@naver.com

봉산지점 전남 여수시 봉산새철2길 1
TEL: 061) 686-7302

계좌번호 농협 302-9450-7529-41 (예금주: 문경일)



몽골 17명 군수 여수관광 나들이

낭만카페에서 몽골인들과 초록빛 지상에서 하나 된 마음

몽골을 대표하는 17명의 군수들이 여수관광을 배우고 느끼기 위해 여수를 방문했다. 고소천사벽화마을을 둘러보고, 낭만카페 깃발을 나누기는 옥상에서 낭만의 커피를 마시며, 바다의 풍경과 풍광을 보고 환호를 외친다.오늘은 유달리

날씨가 참 좋다. 짙은 바다의 것이고 향기는 햇빛의 것이 되어 일상에 속에 낙원이 자리를 잡는다.객주에서 낭만카페는 밤에 보는 정경은 더 좋다고 하니, 달님을 떠올리며 이태백의 파주문율을 읊는다.오늘 사람은 옛 달을 볼 수 없

지만 오늘 달은 옛 사람을 비추었지.옛 사람과 오늘 사람 흐르는 물과 같이 이처럼 다 함께 밝은 달 바라보누나.낭만카페에서 몽골인들과 초록빛 지상에서 하나 된 마음을 가져본다.

최정규 시민기자

문화예술 공간 여수만의 자랑 찾아

- 예술마루를 다녀와서 -

GS칼텍스가 사회적 책임을 위해 여수시 시정동에 조성한 예술마루를 지난주 서울에서 온 지인과 함께 방문했다. 동행한 지인은 예술마루의 이승필 대표에게 예술마루를 영상과 함께 자세히 소개받았다.

본인 집에서 불과 10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서 내가 무관심했구나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곳을 자주 이용해 야겠다고 생각을 갖게 됐다.

예술마루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술마루'의 뜻이다. 예술마루는 '문화예술의 너울이 가득 넘치고 전통가옥의 마루처럼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 시민의 공로로 선정된 이름인데 이름과 걸맞게 상시 문화공연이 열리고 있고 매년 여름이면 시민들이 예술마루 앞에서 분수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상시 열리는 전시 및 공연 중에 마침 6층에서 열리는 전시회가 있어 대표께서 같이 이동하며 구경을 시켜주셨는데 전시회 이름은 양혜웅의 입체화였다. 같은 지역 사람이란 풀린다고 해야 할까, 작품을 보면서 느낌이 작품하나 하나가 '여수답다'라고 여겨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양혜웅 작가의 고향이 여수란다.

나의 고향도 여수라서 끝났을 것이란 생각이다. 작품 하나하나가 고향처럼 포근했다. 서로 손에 하트 모양의 포즈를 취하면서 작품 앞에서 사진을 촬영했다.

이런 작품 전시회뿐만 아니라 다음달 5일에 개강해서 6월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아카데미도 개



강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화요인문학>(클래식 오디오세이), <그림 읽어주는 남자>, <오후의 커피>... 등등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고 한다. 여수에서 접하기 어려운 아카데미 강좌인 것 같아 주위에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빨리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중에 <오후에 커피>강좌는 한때 재미있게 보았던 MBC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 자문위원이자 국내 바리스타 1세대인 '임종명' 바리스타에게 직접 이론을 듣고 핸드드립을 맛볼 수 있다는 생각에 커피를 좋아하는 나로서 꼭 신청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건물도 인상적인데 겉으로 봐서는 외관이 잘 들어나지 않아 무슨 큰 공연장이 있을까 생각했었지만 전체 7층으로 조성되어 있다고 들었을 때 나는 탄성을 지냈다. 서울에서 온 지인은 이곳이 겉으로 봐서는 서울에 있는 거대한 예술의 전당처럼 지상으로 솟아 있지도 않고 설마 저렇게 큰 건물이 있을까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놀랐

다고 한다. 이제 나도 지인들이 오면 낮에는 여수 예술의 전당인 예술마루 저녁에는 여수 밤바다 이렇게 관광시켜줘야지 하면서 혼자 생각을 했다.

비록 짧은 방문이었지만 가깝지만 마음에는 먼 곳이었던 예술마루 이곳을 자주 이용하고 잘 활용하여야겠다. 여수는 대도시와 떨어져 있어서 문화를 제대로 잘 못 누린다는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기회였던 것 같다. 조금 더 부지런해지자 더욱이 앞으로는 소호동과 예술마루앞으로 도로가 생겨서 자연적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구나 금상첨화가 아닌가!

예술마루를 방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예술마루에서 보이는 바닷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앞으로 예술마루가 '에너지로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사회활동의 슬로건처럼 소외된 이웃과 소통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널리 나누면 좋겠다.

이정훈 시민기자



독자 현장고발

이순신 장군 유적지 선소 갯벌 '악취 진동'

이지훈, 황효은(무선초 6년)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로 유명 한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소인 선소에 갔다.

평소에는 모니터링단체에서 주로 저녁시간에 모니터링을 하는데 낮 시간에도 미세먼지측정을 직접 해보고 싶어서 친구와 함께 나왔다.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갯벌오염

도를 측정하는 환경모니터링을 하는데 바람 부는 방향이 바뀌자마자 쏟아지는 악취는 고개를 바로 돌리게 하고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

여수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선소는 사적 제392호로 지정되어 보호해야하는 곳인데 선소 앞바다에 수많은 쓰레기와 냄새나고



오염된 갯벌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물이 빠지면 더욱더 심해지는데

악취를 맡으며 여수시민들은 선소주위를 걷고 있다.

배틀그라운드, PC방 7주간 1위 명성은 사라지고

중 3년의 PC방 게임 체험담

2017년 3월24일 출시된 배틀그라운드(이하 배그)는 피씨방에서 7주간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불과 같은 다양한 게임들을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했고 현재 배그는 피씨방 게임순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배그가 초창기와는 달리 인기가 떨어진 이유는 거의 핵쟁이 때문이다. 핵은 거의 중국인들이 판매하는데 핵이 거의 800만원 가까이 된다. 핵 종류는 ESP, 에이, 견차, 관통, 스피드 등이 대표적이고 핵을 쓰면 게임 플레이가 자기에게 엄청 유리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을 사용해서 핵을 사용해 죽은 유저한테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럼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신고를 하면 윤이 좋으면 며칠 징지 또는 윤이 나쁘면 배그 영구정지를 당한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솔직히 핵을 써서 실력이 늘어 치킨을 먹고 만약 다른 유저에게 걸려 신고를 당해 영구정지를 당하는 거 보단 자신의 실력을 키워 치킨을 먹는 것이 더 성취감이 있다고 생각한다.(치킨=1등)

그리고 핵은 거의 800만원의 거금을 배그에서 치킨 먹었다고 날리면 그것은 좀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한다.

테스트서버라는 배틀그라운드를 업데이트 전에 미리 체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런데 내가 직접 한번 체험해보니 핵쟁이들이 대충고 핵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배틀그라운드에서 핵을 못 쓰니 테스트서버에서 핵을 쓰는 것 같다. 그래서 핵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 배그에서 파밍이 잦았는데 핵쟁이한테 죽었다면 화가 많이 나는 유저들이 많고 배그가 싫어지는 유저들이 있다.

그래서 핵쟁이들은 즐깁하는 유저들을 위해 양심 없는 짓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 다음에 배그가 싫어지는 다음 원인은 너프이다. 너프는 업데이트가 안 좋은쪽으로 되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총의 반동, 총의 밸런스, 3.lv 헬멧, 고인물 루트, 스킬 등이 있다.

물론 좋게 업데이트 된 경우도 많다. 하지만 나쁘게 된 것도 많으니 그것도 배그의 인기가 떨어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너프를 심하게 당해서 사람들의 인식에 나쁘게 찍힌 총들이 m16(너무 안 좋아서 그그16이라는 별명까지 붙음), vss, scar, tommy

gun, win 94등이 있다. 이것들의 너프로 인해 이총들을 좋아하던 유저들이 흥미를 잃었고 반동과 총의 밸런스 때문에 총에 적응을 못해 배그가 싫어지는 경우가 있다.

지금은 배그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지만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빨리 죽거나 못 죽이고 존버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도 인기가 떨어진 이유인 것 같다.

나는 배그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배그가 나쁜 인식으로 찍히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중에도 이런 배그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 시정되어 배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사랑받는 좋은 게임이 되었으면 한다.

김건우 학생기자(충덕중학교 3년)

캄보디아에 사랑과 나눔을...

글쓴이: 은현교회 김성열 청소년부담임목사
사진촬영 : 충무고2학년 조하늘

여수 은현교회 아가페청소년부(중고생) 23명이 김성열 목사와 차기철 장로의 인솔로 3박5일 일정으로(2019년 1월 14일~18일) 캄보디아 프놈펜 이삭공동체로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캄보디아에 있는 이삭공동체(대표:김기대선교사)는 2000년도에 설립된 자선NGO다. 공동체를 통해 선교, 교육, 경제, 생애의 영역에 걸쳐 현지민들의 자립을 목표로 사역하고 있으며 배출된 현지 사역자를 통해 두 지역(끼리봉, 뜨러다봉)에 교회가 세워졌다.

단기선교단은 일정동안 이삭학교(공동체) 및 두 지역교회에 세워진 유·초·중·고등학교 약 480여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사역(공연), 캠프사역(미니올림픽 등), 건축사역(페인트칠), 미용사역을 진행하였다. 단기선교단 출발 3일 프놈펜에서 발생한 건양대 봉사팀의 안타까운 사망사고로 인해 출발 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단기선교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셨다.

이삭공동체 탐방을 통하여 구원은 교회 안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도전을 받았다.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해결하지 못한 가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다.(창4:32-35)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인 사고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하영광을 위해 세상을 도구삼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임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과 기술을 가난한자들과, 약자와 나눔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다.

캄보디아는 위생상으로 열악한 지역이다. 마켓에서 파는 생수조차 브랜드를 가려 마셔야 한다. 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먼지를 맞으며 트럭을 타고 이동했다. 모든 것이 열악하고 부족한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됨을 깨달았다.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심을 단기선교를 통해 경험하였다. 나의 결핍은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청소년들이 깨닫게 되었다.



더운 날씨와 열악한 숙소환경 등 감사와 즐거움을 느낄 여지가 없는 곳에서 청소년들의 미소가 캄보디아 어린아이들의 미소와 닮게 됨을 보게 되었다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선교가 즐겁고 행복하다고 듣게 되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림을 단기선교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깨닫게 되었다.

캄보디아에는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많았고, 그 아이들은 남루한 옷과 맨발인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조그만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기뻐했다. 캄보디아국가 정체가 미래 아이들에게 교육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곳은 풍

부한 인적 자원이 그들의 미래를 행복하게 할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간 우리 청소년들은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아이들과 교제하며 기쁜 나눔과 섬김을 하며 큰 보람을 느꼈다.

여수여교 1학년 허가영 학생은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감을 느껴본 것 같다. 단기선교를 통해 관심도 없던 캄보디아를 자세히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다. 무엇보다. 준비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간 것 같고, 선교는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니 활동이란 것을 경험하는 통해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스리랑카에서 온 공연 관계자들과 함께(오른쪽 두 번째)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험담> 스리랑카에서 온 누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지 7년이 된 스리랑카에서 온 누완입니다.

여수에는 저처럼 한국으로 돈을 벌기위해 온 친구들이 120명 정도 있습니다. 예전에 배타는 사람이 많을 때는 250명 정도로 많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병동공장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병동공장이 영하로 너무 추워서 힘들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한국인 근로자5명이고 외국인 근로자 3명이었는데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5명으로

더 많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좋지만 스리랑카가 그림고 엄마도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설에는 스리랑카에서 인기 있는 가수인 밴드가 해남으로 공연을 와서 스리랑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수와 설 두 번을 스리랑카에서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저는 한국 온지 7년이라서 한국말을 잘하지만 한국에서 말 때문에 힘든 스리랑카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을 위해 번역부터 핸드폰 시는 일까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스리랑카근로자의 작은 사건이 있어서 번역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스리랑카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배를 타거나 양식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배를 타면 거친 언어에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위험해서 목숨을 잃은 동료들을 보면 두려움과 슬픔이 많습니다.

스리랑카에서 한국 오려면 시험을 보고 인터뷰 통과를 해야 하는

데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어렵게 한국 와서 고생하거나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국인력지원센터에서 2017년 3월에 표창장을 받았습다. 스리랑카근로자를 위한 모바일과 페이스북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글로벌해외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자가 나오면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스리랑카에 혼자계시는 엄마도 모시고 오고 싶습니다.

스리랑카 친구들~ 한국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저 누완에게 연락해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여수시 ‘희망날개 교복나눔 한마당’ 행사

학생, 학부모, 후원기업 대표 등 600여 명 참석
국가산단 기업 후원...신입생 240명 교복비 지원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21일 오전 흥국체육관에서 학생, 학부모, 후원기업 대표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날개 교복나눔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복 걱정 없는 여수를 만들기 위해 여수시와 여수국가산단 기업, 여수YMCA, 국제와이즈맨이 뜻을 모아 마련한 지역 대표 나눔문화 행사다.

여수산단 11개 기업은 교복 나눔 행사에 7200만 원을 후원했다.

후원 참여 기업은 GS칼텍스(주), (주)LG화학, 여천NCC, 롯데케미칼(주), 롯데MCC, 삼남석유화학(주), 한국바스프,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 금호폴리캠, 금호미쓰이화학이다.

시는 후원금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복지 위기가구 고등학교 신입생 240명에게 3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장에서는 2019 여수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물려주기 행사도 열렸다.

이날 마련된 교복과 체육복 1500점은 학생, 학부모에게 대부분 팔리는 인기를 보였다.

(주)LG화학 여수공장 운영훈 주재임원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당당한 지역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어른들의 기대와 정성이 담겨 있다.”며 “여수국가산단은 지역민과 함께 상생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오봉 시장은 “교복 걱정 없는



여수, 청소년이 행복한 여수를 위해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준 후원기업, 교육지원청, 국제와이즈맨 진남클럽 등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우리 여수의 아이들이 부모의 꿈을 떠나지 않고도 자

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여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교복나눔 행사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중·고생 3023에게 6억 2710만 원을 지원했다.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160억 투입

여수·고흥 등 동부권 해역 담당 2척 건조

전남도는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 어업 단속 등을 위해 1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 어업지도선 2척을 대체 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업지도선은 권역별로 4개가 운영되고 있다. 목포 남항에 전남 201호(115t)와, 전남207호(90t), 여수 신월항에 전남204호(33t)와 210호(60t)가 정박하면서 동·서부권

해역을 나눠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여수·고흥 등 동부권 해역을 담당하는 2척의 선령이 24년과 27년이다.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 및 철관 부식, 섬유강화플라스틱(FRP) 뒤틀림 현상 등이 발생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

2척 모두 60t 이하의 소형선으로

기상 악화 시 신속한 현장 대응에 애로가 많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가 절실한 요구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어업지도선 2척의 대체 건조를 위해 지난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18일 설계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설계용역 수행계획 발표와 선형, 선질, 추진기 등 설계 방향을 설정하고, 과업지시서 내용 등 주요 사항을 검토·협의했다.

4월께 장비선정위원회 구성, 중간보고회 등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7월 28일까지 실시 설계도서 납품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근석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를 통해 승선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어업환경 변화와 지능화책가는 불법 조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도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ی겠다”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대기 기자

물메기 지역 해역에 1천만 마리 방류

전라남도해양수산기술원(원장 오광남)은 겨울철 남해안 별미로 알려진 꼼치(물메기) 자원 증강을 위해 지난 3일 갯 부화한 자어 100만 마리를 시작으로 전남 해역에 1000만 마리를 방류한다.

전라남도해양수산기술원은 지난 해에도 꼼치를 잡는 어업인과 협력해 어구 등에 부착된 수정란을 확

보, 육상 배양장에서 인공 부화시켜 여수해역에 800만 마리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인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올해는 여수 돌산과 백야도 인근 해역에 3회에 걸쳐 500만 마리를 방류했고, 앞으로도 500만 마리를 추가 방류할 예정이다.

물메기로 잘 알려진 꼼치는 겨

울철 지역 대표 소득 품종이다. 산란기인 12~3월에 알은 연안으로 이동해 알덩어리를 바위나 해조류 등에 부착시키는 산란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통발이나 그물 등에 산란하지만 방치되거나 버려져 소멸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생산량 또한 매년 줄어 마리당 1만 5천 원에 거래될 정도여서 자원 증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

제로 전남지역 꼼치 생산량은 2015년 236t이었던 것이 지난해 126ton으로 줄었다.

오광남 원장은 “꼼치 자원 회복 사업을 시작으로 어획량이 줄어드는 다른 어종에 대해서도 어업인과 함께가는 자원 회복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중요로운 수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대기 기자

전남도, 양식어장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양식업체 1명당 급여 50%, 최대 100만 원 지원

전남도는 청년세대 초보 양식어업인의 지역 정착을 위해 수산계 학교 졸업 전문인력을 채용한 양식업체에 1명당 매월 급여의 50%, 최대 1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양식어장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전남지역 18개소 양식업체

에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양식업체에서는 전국 수산계 학교 졸업 전문인력을 채용한 양식업체에 1명당 매월 급여의 50%, 최대 1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양식어장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전남지역 18개소 양식업체

취업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낮은 보수와 복지 문제 때문이다.

전남도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양식어장 청년일자리 사업을 도입했다. 양식업체에 기술력을 보유한 어업인 고용 부담을 줄이고 수산인재를 양식현장으로 유입해 미래 어촌인력을 확보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취지로 그동안 12명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했다.

앞으로 양식업 청년 취업자에게는 양식기술 교육, 첨단 양식 현장

탐방, 창업어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해 전문가로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양식업 창업에 위한 보조 사업자로 선정해 정부지원 혜택도 늘려갈 방침이다.

황동성 수산자원과장은 “수산계 학교를 졸업한 청년 전문 인력이 양식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귀 기울여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민대기 기자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여수·순천 중심으로”

김영록 지사 도민과대화서 현안사항 도정에 반영키로

김영록 전남지사는 “여수와 순천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사업의 중심도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18일 민선7기 도민과의 대화에서 첫 방문지로 순천시, 여수시 등 동부권 대표도시를 찾아 지역 현안사항 및 도민 불편사항을 수렴해 도정에 반영키로 약속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순천시청에 열린 순천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순천시는 4년 연속 500만 관광객을 유치해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 순천시는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할 만큼 용인에 버금가는 관광객 유치 능력을 갖겠다”고 극찬했다.

이어 “순천시는 영남, 충청권을 포함해 남해안권 중심도시로, 전남도 1조원 예산 첫 돌파, 인구 증가 도시, 국가정원 1호 도시 등 전남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인 순천에 생태관광과 정원산업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토록 하고, 4차 산업혁명 박람회와 e-스포츠 경기장 등 첨단시설을 집적한 미래산업특구로 조성해나간다면 새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많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여수시청에서 열린 여수시민과의 대화에서 “여수시를 세계적 해양관광휴양도시로 키우고, 국제컨벤션도시로 발돋움토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특히 “여수는 다도해해상 국립공원과 향일암·비랑길 등 빼어난 절경과 아름다운 섬들로 이어진 천혜의 해양관광도시”라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4년 연속 관광객 1300만 명 이상이 찾는 정도로 저력이 있는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라며 높이 평가했다. 이어 “화태·백야 등 연도교가 예타 면제가 되고 경전선이 예타 재조사를 통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수가 남해안권 중심도시로서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가 우수시책 사업으로 보고한 ‘시민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에 대해 김 지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잘된 사례”라고 격려했다. 또 ‘국가산단 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대해 김 지사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려면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도민과의 대화에서 이길곤 순천시 농민회장이 도내 시군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농민수당 지급문제를 도에서 일괄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자, 김 지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농민수당을 내년 부터 전면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향돌 개발현장을 방문한 김 지사는 현황을 듣고 “여교에유 체험센터와 순천만 잡월드 등을 단지화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며, 앞으로 확장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달라”고 주문하고 “단지 내에서도 이모빌리티와 같은 친환경 이동수단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순천시가 도비 지원을 건의한 미세먼지 차단 시민의숲 조성, 잡월드 진출 입로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해 김 지사는 흔쾌히 답했다며 화답했다.

민대기 기자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 위한 토론회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경상남도, 국회 도서발전연구회(대표 박지원 의원)와 공동으로 20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사)한국글로벌섬재단,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사)섬연구소, (사)도서학회 등 국내 섬 관련 기관, 단체와 섬 전문가, 섬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에서는 이재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의 필요성과 역할’,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섬 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섬 전담 국책 연구기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순호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강봉룡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장, 강재운 (사)섬연구소장, 손재환 경남 통영시 의원, 채동렬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는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면서 최적의 설립 방안을 모색했다.토론회에는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황주홍(민주평화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윤영일(민주평화당)서삼석(더불어 민주

당) 국회의원, 여성규(자유한국당) 국제법제사법위원장, 김한표(자유한국당)홍일표(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 지역과 당적을 가리지 않고 참석해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의 설립 분위기 확산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나타냈다.

김영록 지사는 “세계에서 섬이 4번째로 많은 국가임에도 섬 개발과 보존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국가 차원의 전담 연구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안 압해도와 해남 화원, 여수 화태도와 백야도를 잇는 서남해안 관광해안도로가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는데, 국립 섬발전연구진흥원이 있었으면 더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국립 섬발전연구진흥원을 설립해 우리나라 섬 발전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대기 기자



여수일보사 호루라기

살기 좋은 여수 만들기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보해주세요.

권력형 비리부터 우리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 부패까지 다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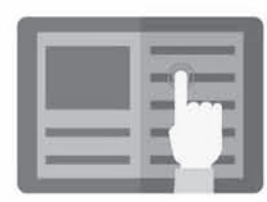
우리사회의 어두운 길목을 시민 스스로 호루라기를 불어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됩시다.

제보자는 신원 비밀 보장해드립니다.

제보방법

전화 061-654-8885, 061-810-0011

메일 ysibtv@hanmail.net



여수시 조산로 233-18(덕양리 436-22)(소라면)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인가?

-농사의 시작은 관심에서 부터 -

[농사는 자연이다] <1>

하 병 연 박사 (경상대학교 학술교수)



귀농하거나 전문 농업인으로 생활하거나, 도시 뒷밭으로 도시 농업인으로 생활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막상 농사를 시작하려니 막막하다. 그래서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선배 농업인들의 경험을 학습하기도 하고 농업에 관련된 책도 구입하여 나름대로 농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다. 또한 주변 농업인들에게 농사에 관한 노하우를 묻기도 하고 직접 재배 농지를 찾아 가기도 한다. 농사의 시작은 이렇게 관심에서부터 나온다. 하지만 뭔가 2%

부족한 게 있다. 농업 전문 서적들은 농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학문이고 일반 농민들은 주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다보니 농사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작물을 토양에 심어 놓기만 하면 토양이 알아서 키울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토양도 작물 가꾸듯 가꾸어야 좋은 토양이 된다. 적지적작(適地適作) 가장 알맞

작물 심어 놓기만 하면 그냥 된다는 생각 많지만 토양도 작물 가꾸듯 가꾸어야 좋은 토양이 된다 심어야 할 토양에 가장 적합한 작물 선택도 중요

은 환경 조건~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 키우는 것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작물은 기상·토양·미생물 등 다양한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커진다. 작물의 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성이 자연환경의 지배 밑에서 최대의 유전적 형질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작물의 생육 단계에 따라 가장 알맞은 환경



조건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 주어야 수확도 많아지고 품질도 좋아지기 때문이다.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토양이 필요할 것이고 토양 속에 심을 작물의 종자나 모종이 필요하고 작물을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또 작물 생육을 위

그래서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제일 먼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바로 적지적작(適地適作)이다. 적지적작(適地適作)은 작물재배 토양을 잘 선택하여 작물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 즉, 작물을 선택할 때 내가 심어야 할 토양에 가장 적합한 작물을 선택하여 잘 가꾸어야 한다는 말이다. 농사에 있어서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적지적작(適地適作)을 하지 않아 두고두고 후회하는 농업인들을 많이 보았다. 특히 과수 작물은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피해는 많다. 작목과 농지 선택은 도시인들과 비교할 때 직장 선택과 같다. 한번 선택된 직장은 좀처럼 바꾸기 힘든 만큼 농업인들에게도 작목 선택은 매우 중요하고 힘들다. 그래서 가장 많이 고민하여야 한다.

몽골에서 출발 이곳 순천만까지 날아온 독수리떼

2천 킬로미터 이상 비행한 천연기념물 제243호, 20여 마리 독수리 무리

지난 2월 11일 순천만 흑두루미를 찾아 여수에서 발길을 옮겼다. 아차! 물때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탓으로 흑두루미무리가 갯벌 안으로 집결한 후였다. 아쉬웠지만 순천만을 뒤로하고 여수로 가는 연안도로 863번을 이용하기 위해 논로를 타고 달렸다. 그런데 그냥 스치면 잘 모를 정도 언덕아래 가까이에서 독수리(Aegypius monachus) 5형제가 쉬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자세히 보니 무리 중 한 마리는 먹이를 물어안고 연신 먹고 있었다. 나머지 네 마리는 쉬고 있던 것이 아니면 쳐다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또 다른 녀석은 흑시나 먹이를 차지하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때 갑자기 번호44표식(몽골, 이 한수 박사 자료)을 하고 있는 녀석이 달려들더니 단방에 먹이를 낚아챈 것이다. 빼앗긴 녀석은 못내 아쉬워하며 쳐다보고 있었다. 여하튼 순천만은 이런 모습으로 평온해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날아들어 오는지 모르게 상공 등 20여 마리로 늘어나면서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몇몇 독수리는 폭격기처럼 손살잡이 내려와 먼저 자리 잡고 있는 녀석들을 위협하거나 먹이를 빼앗기 위한 쟁탈전을 벌였다.



▲순천만에서 만난 44호 독수리 무리

또 다른 녀석들은 상공을 선회하다가 마치 전투기에서 폭탄을 투하하듯 차레로 쳐 박히듯이 논바닥으로 내려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먹이를 차지한 녀석의 마음은 좌불안석이었을 것이다. 역시나 번호44는 그만 먹잇감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런 상황의 연속이 자리차지인지만 아니면 짝을 찾는 것인지만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여러 가지의 쟁탈전은 20여분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다 갑자기 한 녀석이 포기하고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어 본래 있었던 5마리만 남고 다른 무리들도 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졌다. 한바탕 소란을 피우던 녀석들이 사

라지고 나니 다시 평온을 찾았다. 이처럼 한바탕 소동을 피운 20여 마리의 독수리 무리는 번호44번 때문에 흑시나 모두 몽골에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 몽골에서 이곳 순천만까지는 무려 2,000킬로미터가 넘는다. 한편 극한 추위를 피해 이역 만방까지 날아온 독수리는 수리과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243호,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국가적색목류 취약(VU)으로 분류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10년 전만해도 50여 마리가 넘었으나 순천만 등 지형변화 이후 매년 순천만에는 15~30여 마리가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다. 한해광기자

3.1절 100주년 기념 우리지역 순국선열의 발자취를 따라

일제강점기 여수 출신 최연소 독립운동가 주재년 열사

돌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해안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아담하고 경치 좋은 작금마을이 있다. 그 곳 골목담장을 지나다보면 주재년 열사기념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기념관은 본동1동과 대문간1동, 비각1동 등으로 건축되었다. 주재년열사 조카 주충배(82세)씨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였고 주재년 열사의 업적을 자세히 소개해 주었다. 주재년 열사는 돌산읍의 작금마을에서 농민출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3남 3녀 중 막내아들로 태어나 마을의 수재로 불렸다. 어린 시절 마을의 서당 주상규 선생으로부터 천자문, 한글, 일본어를 배웠다고 한다. 학적부 기록에 따르면 주재년 열사는 공부도 잘했지만 모든 면에서

최우수였다고 한다. 주재년 열사가 졸업할 무렵 일본은 중일전쟁에 이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농민들의 수탈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1943년 일제강점기 일본 경찰들을 분노에 차게 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것은 여수의 한 마을 담장에 적힌 4마디의 글 때문이었다. 일본 경찰은 15세의 어린 주재년 열사를 고문을 한다. 4개월 동안 고문을 당하다 1944년 순천지청에서 열린 재판에서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는다. 판결이 있는 다음 날 석방이 되지만 혹독한 고문으로 석방이 된 지 한 달여 만에 순국하였다. 주재년 열사의 장조카인 주충배님은 "작은아버지의 고문치사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발이 닳

도록 찾아갔고 모두들 귀찮은 존재로만 여겼다"고 힘들었던 과거를 전했다. 2006년 주재년 열사 재관관결문을 국가 기록원에서 찾게 되면서 그해 8월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그런 후에도 주재년 열사에 대한 기념사업은 지지부진하였다. 장조카 주충배씨는 여수의 언론 그리고 시청, 도청, 신문기자 등을 상대로 계속 노력한 결과 2012년 5월 7일 드디어 주재년 열사 기념관의 개관을 하게 된다. 어린나이였지만 민족의식이 확고하였던 주재년 열사! 주재년열사 조카 주충배님은 주재년 열사에 대한 기념사업에 많은 아쉬움을 표했다. 기념관에 세워진 비각 내용이 당시 재판기록 관결문에 14세로 기록되어있던 주재년열사 나이를 시



에서 15세로 잘못 기재된 부분과 많은 경비를 들여 어렵게 운반해온 주재년열사 자필 비석을 기념관 마당에 그대로 방치 해둔 것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아쉬워했다. 조카 주충배님은 복원을 위해 시에 몇 차례 언급했지만 아직 아무런 대안을 보이지 않고있으며 '빠른 복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제지배에 항거했던 3.1절 10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 주재년 열사 대한 추모와 그의 정신을 기억해야 했다. 김경화 시민기자

“남해안 쓰레기 심각성 정부는 깨달아야”

해양오염문제 해결 위한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고희·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해양오염 실태 및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김승갑 전 국회의원 발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는 "고흥이 바다가 3면으로 둘러싸여있고 나머지3개 군도 해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특성이 비수다. 이런 이유로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든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뒀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도시에 나가있는 분들이 다시 우리 지역으로 와서 살든 우리지역을 지키면서 농어촌에 여러 가지 특색한 작물이라던가 앞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농수산생산물들 그런 것들이 계속 생산해내고 지키려면 정말로 우리 지역에 환경문제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제역과 AI한번 터지면

해당 지역에서 애지중지하며 아꼈던 가축들이 단 한 번에 살 처분당하지 않는가, 또 소비하는 도시에서는 농수축산물을 먹지 않게 된다. 결국은 문제는 다시 우리한테 돌아가게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청정 바닷가에서 어패류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환경을 지키는 것은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잘 지키면 지킨 값이 다시 우리한테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해양자원은 앞으로 우리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세대 한테도 깨끗이 쓰고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예산이 많다. 토론회를 준비하다 보니가 KBS에서 서남해안 특히 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서

쓰레기가 너무 심각하다는 보도를 봤다"고 경고했다. 1년에 2만6000톤씩의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는데 수거하는 쓰레기 양은 40톤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수거하는 쓰레기 이것을 또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아만 쌓아 이것을 태우거나 아니면 소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한번 이야기를 모아서 토론회 결과를 그대로 이것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수부나 기획재정부 등에 올려서 남해안의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여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특히 예산문제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예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보다도 필요한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로 하다는 것 등을 적시를 해서 우리 지역에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해광 기자

Digital World dreams of warm-hearted Analog World



디지털세상
DIGITAL WORLD

A 전남 여수시 도원로 263 (학동)
T 061)683-7770
F 061)683-7772
E dise012@hanmail.net
H www.digitalw.co.kr

복사·출력·스캔(대형, 흑백, 컬러, 도면)/제본/코팅(대형)
인쇄/전단/양식지/명함/스티커/판촉물인쇄/도장/고무인
복사용지/컴퓨터판매·수리/컴퓨터작업·디자인/디지털용품

